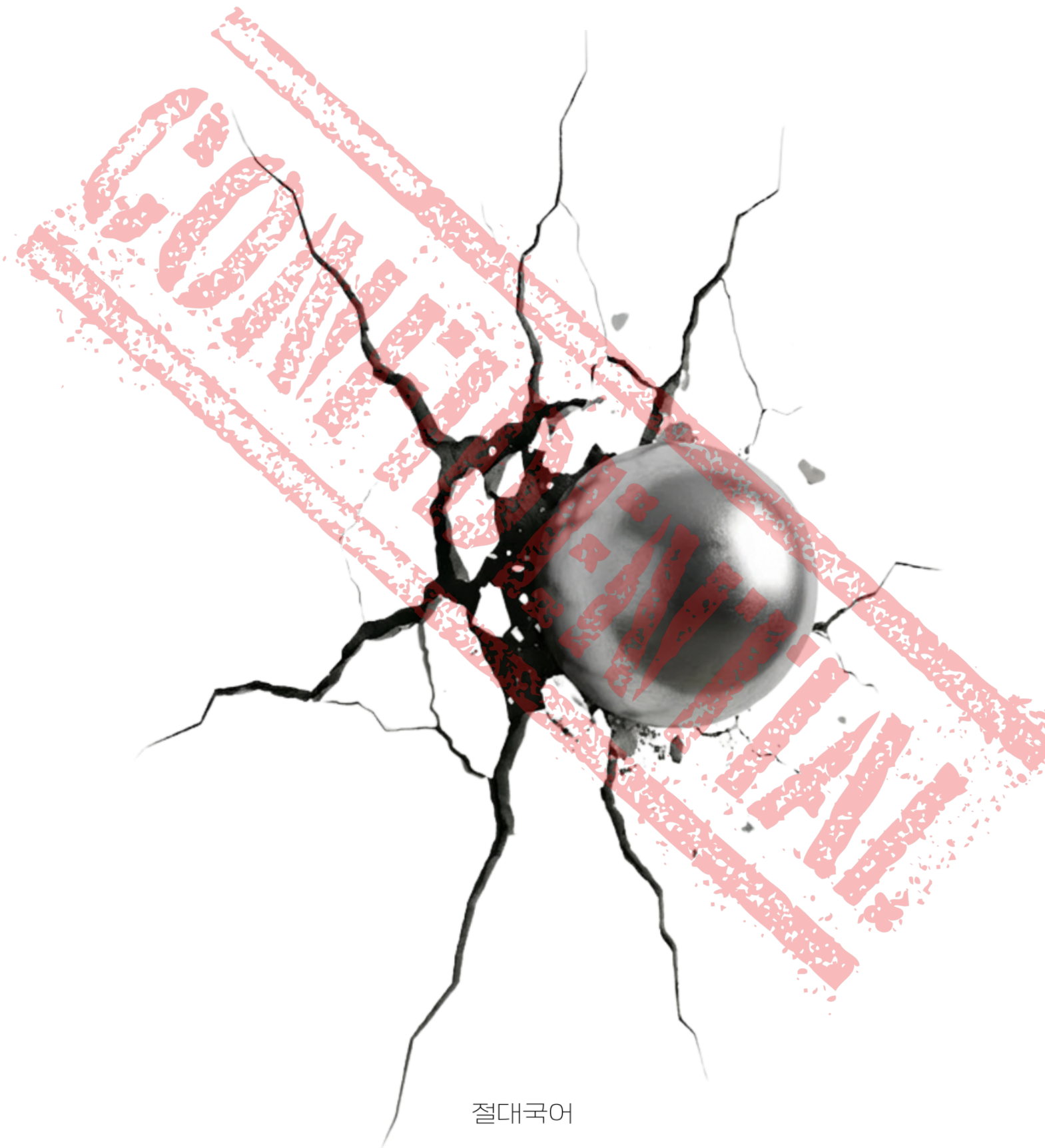


JIHWANIZM

2026년 고2 6월 국어 모의고사
전국 유일 전지문 전문항 분석지



절대국어

단언하는데 AI 분석지 이딴 거 말고, 강사가 직접 쓴

전국 유일한 올해 6월 고2 모의고사 전지문 전문항 분석지임.

총평 : 고2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훨씬 정돈된, 2028 수능 대비 현 고2에게는 가문의 단비같은 기출 시험지. 고3 때 만날 시험지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잘 만든 시험지다. 문법은 매우 쉬웠다고 볼 수 있고, 신유형인 화법+문학, 독서+작문 유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바베크인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다. 문법 문제는 두 문제 정도 까다로웠고(오답률이 증명), 독서는 무난한 난이도. 변별력을 상당히 잘 확보한 좋은 시험지다.

활용 방법 : 반드시 먼저 혼자 다시 풀어보고 나서, 모든 선택지를 다 해설한 후에 분석지와 비교해 보며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 엄밀하지 못했던 지점들,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지 구성

문항 번호	문제 유형	특이사항
1~3	화법(혼자 떠드는 유형) + 문법 융합 난이도 중	28 예비 시행에서도 봤듯이, 문법에 대한 '발표'가 제시되고 있음. 화법 단독에 비해서 가볍게 후루룩 읽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 문법 내용을 숙지하면서 독해해야 함.
4~6	화법 단독(여럿이 떠드는 유형) 난이도 하	5번(오답률 7위) / 6번(매우 좋은 문제_시간을 많이 썼을 수 있음)
7~10	문법 단독 문항들 난이도 중상	7번(오답률 1위)(처참하다 고2의 문법 상태..) / 9번(오답률 3위)
11~15	독서 (가)(나) 사회/법 난이도 중	1604 청약과 승낙 지문을 기본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지문. +좀 웃긴데, 이번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이랑 50%는 겹치는 것 같다. 지문 내용이 어렵קות하게 기억이 났다면 당신은 기억력이 좋은 편.
16~19	독서 과학 난이도 중상	아 연습하기 딱 좋다! 변별력이 있는 지문으로, 상위 1등급과 2등급 이하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크게 갈렸을 지문이다. 과학 지문 읽기 태도를 잘 길러 놓도록 하자. 이 정도 지문이면 훨씬 어렵게 낼 수도 있었다.
20~23	독서 예술 난이도 하	쉬어가는 지문
24~27	독서 + 작문 융합 난이도 하	28 예비 시행에서 예고했던 지문이다. (가)와 (나)가 아예 따로 노는 글일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재밌는 배치였다. 이번 시험지는 출제자의 실험 욕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그 실험이 과하지 않아서 좋은 표본이 될 것 같다. 아마 고3이 된다면 여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25번은 킬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
28~30	작문 단독 난이도 하	너무 쉬웠던 기본 작문 단독 세트지만, 이것도 29번의 위치에 있는 자료 활용한 초고 보완 유형은 현재(27수능까지) 화작에서 킬러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다. 아마 고3이 된다면 자료 활용 초고 보완 문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31~34	고전소설 난이도 하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 다른 기출을 풀면서 제대로 대비하도록 하자.
35~38	현대소설 난이도 하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 다른 기출을 풀면서 제대로 대비하도록 하자.
39~42	고전시가 + 수필 난이도 중	주요 문항 9번. 수필의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음.
43~45	현대시 난이도 최하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 다른 기출을 풀면서 제대로 대비하도록 하자.

등급컷(1~4등급) [1] 89 [2] 81 [3] 71 [4] 59

오답률 상위 : 7, 14, 9, 19, 39, 18

문법 내용을 '발표'하는 화법-문법 융합형 세트다. 화법 단독의 경우 에베베베 하고 읽어도 '말하기 방식'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걸 애초에 융합형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문법적인 내용 숙지를 겸해야 한다.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글 자음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니은, 리을, 미음'처럼 한글 자음자의 명칭은 대개 모음 'ㅣ'와 'ㅡ'를 공통으로 쓰고, 앞 글자의 초성과 뒤 글자의 종성에 해당 자음이 반복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기역, 디귿, 시옷'은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 오늘의 문법 발표 주제는 [ㄱ은 왜 '기억'이 아니라 '기역'인가?]이다. 재밌는 소재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자음자의 명칭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527년에 어문학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말 자음자의 소릿값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① 차자 표기를 활용했습니다. (자료 제시) 예를 들어, 'ㄴ'은 한자로 '尼隱'이라 적었는데, '尼(니)'는 'ㄴ'의 초성 소릿값을, '隱(은)'은 'ㄴ'의 종성 소릿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초성과 종성에 같은 자음을 포함하는 한자를 짝지어 표기한 것이 훗날 자음자의 명칭으로 굳어진 셈입니다.

: '니'를 위해 한자 하나, '은'을 위해 한자 하나, 이렇게 해서 '니은'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차자 표기'다. ('차'는 임대차, 차용증 할 때 '차'로 빌린다는 뜻이다.)

최세진은 '尼隱(니은), 梨乙(리을), 眉音(미음)'과 같이 해당 자음에 모음 'ㅣ'와 'ㅡ'를 결합해 'ㄴ, ㄷ, ㄹ'의 소릿값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자료 제시) 그렇다면 'ㄱ, ㄸ, ㅅ'도 '기억, 디은, 시옷'으로 표기해야 일관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에 '억, 은, 옷'으로 소리 나는 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ㄱ'은 '억'을 대신해 발음이 비슷한 '役(역)'을 써서 '其役(기역)'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 주제다! ㄱ, ㄸ, ㅅ는 한자음이 없었다! 그래서 비슷한 걸 가져와서 '억' 대신 '역'으로!

반면에 '을'과 '옷'은 '억'과 달리 비슷한 발음이 아니라,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훈'을 빌려와 표기했습니다. (자료 제시) 『훈몽자회』에서 'ㄸ'은 '地末'로 표기했는데요. 당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기 전이라 '地(지)'는 '디'로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末'의 뜻은 지금의 '끝'에 해당하는 '근'이고, 음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末'은 뜻을 빌려 '을'을 대신한 것입니다.

: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겠다. ㄱ과 ㄸ은 다르다. ㄸ의 경우, 음이 아니라 '뜻'(훈)을 가져왔다. '을'을 표기하고 싶었지만, 그런 한자 '음'이 없어서 (그리고 아마 '억'과 '역'처럼 나름 비슷한

것도 없었겠지.) 뜻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끝'이라는 뜻을 가져와서 '디끝'(디귿)으로 발음했다는 것!!

(자료 제시) 이러한 방식은 '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책에서 'ㅅ'은 '時衣'라 표기했습니다. '衣'는 뜻이 '옷'이고, 음이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衣'는 뜻인 '옷'을 빌려 '옷'을 대신한 것이죠. 정리하면 '기역'의 '역'은 '억'과 비슷한 음을, '디귿'의 '귿'과 '시옷'의 '옷'은 뜻을 빌려 표기하다 보니, 규칙에서 벗어난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니 내용 설명은 생략. 이렇게 발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말하기 방식은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 이 지문은 화법-문법 융합형이기 때문에, '말하기 방식'에 항상 힘을 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선택지로 나올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게 공부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자음자의 명칭은 이러한 『훈몽자회』의 표기가 굳어진 결과입니다. 1933년 조선어학회 역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며, 이 역사적 관습을 존중해 '기역, 디귿, 시옷'을 표준 명칭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한글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통시적인'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여러분 최근에 수학여행 갔던 것, 기억 하시나요?" 이런 것이 있었냐고 묻는 선택지.
- ② 발표 중에 발표 내용을 간추려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아마 이런 선택지를 화법 기출에서 자주 봤겠지만 적절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 ③ 청중의 행동 변화를 강조하며 발표의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만약 나온다면 1문단이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전문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관련 학자가 기관이 나온 것이다. 대충 뭉개지 말고 읽고 판단하자.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한글 자음자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규칙을 소개해야겠어. ①
- : |와 -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개'의 규칙이다.

[전개]

- 한글 자음자의 소릿값을 한자로 나타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②
- : 차자 표기 - 예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니은)
-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용어의 어원을 분석해야겠어. ③
- : 어떤 개념을 정의했더라? 하고 Pass.
- 『훈몽자회』가 쓰인 당시와 오늘날의 발음이 다른 한자는 왜 발음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겠어. ④
- : 뭐였더라? 하고 Pass.

[정리]

- '기역, 디귤, 시옷'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사용되는 이유를 언급해야겠어. ⑤
- : 마지막 문단이었다.

: 이렇게 3, 4번 선택지를 남긴 후, 풀었으면 된다.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땅 '지'가 '디'로 발음되었었다는 4번 선지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발표 내용 중에 차자 표기와 관련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표적인 우리의 차자 표기법에는 향찰이 있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훈차'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은 '음차'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한자(훈-음)를 이용하여 향찰로 표기된 가상의 문장에서 ㉠~㉣를 분석해 볼까요?

ㅍ(나-오), 隱(숨을-은), 水(물-수), 乙(새-을)
 飲(마실-음), 多(많을-다)

[우리말] 나는 물을 마시다.
 [향찰 표기] ㅍ 隱 水 乙 飲 多
 ㉠ ㉡ ㉢ ㉣ ㉤ ㉥

: '나'는 뜻을 가져왔으니 훈차, '물'도 '훈차', '을'은 음을 가져왔으니 '음차', '마시-'는 훈차, '-다'는 음차다.

학생: _____ [A]

- ① ㉠은 대명사 '나'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 ② ㉡는 명사 '물'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 ③ ㉢는 목적격 조사 '을'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 ④ ㉤은 용언의 어간 '마시-'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 : 쉬운 문제다.
- ⑤ ㉥는 종결 어미 '-다'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4~6] 다음은 학생회 토의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기존 시험 구성(독서17 문학17 화작11)에서도 있었던, [여럿이 떠드는 유형]이다. 대화의 큰 주제가 있고, 작은 주제들이 중간 중간 바뀌기 때문에 끊어 주며 읽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용이하다.

사회자: 학생회실에 각종 행사에 사용된 후 방치된 현수막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학생회실 폐현수막 처리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 큰 주제는, 학생회실에 쌓인 '폐현수막 처리'하는 방법이다.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

학생 1: 양이 많긴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을까요?

학생 2: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인 현수막은 소각할 때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하더라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A]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학생 3: 그렇다면 우리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부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들고 환경에 부담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 solution1과 2가 나왔다. 1은 그냥 귀찮으니 일반 쓰레기에 버리죠? 인데, 환경 오염의 문제로 까였고, 2는 '재활용'이다. 당연히 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겠네. (*A에 대한 5번 문제의 단독 선지는 지금 바로 처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보통 붙어 있는 두 사람의 발화의 연결 고리를 묻는다.)

사회자: 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계속 의견 주십시오.

학생 1: 환경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잠시 기다린 후) 그러면 재활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 여기까지가 '방법'에 대한 논의 끝. '재활용'으로 결정. 끝는다.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학생 4: 보도 자료를 보니,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생 원료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업과 연계하면 어떨까요?

: (1) 화학 분해해서 '원료'로 만들기

학생 3: 폐기물을 분해하지 않고도 디자인적 요소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 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지자체의 행사 등을 통해, 폐현수막으로 지갑이나 가방 같은 패션용품 만들기, 폐현수막 뒷면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등의 제작 체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 (2) 분해X, 폐현수막을 덕지덕지 붙여서 가방 만들기(업사이클링) [B]

학생 1: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현수막 조각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예상 문제 제시

학생 2: 그렇지만 재활용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활용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폐현수막 조각들은 제품을 만들 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장점이 많다!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

학생 4: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네, 직접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군요.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추가 활동]

학생 4: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를 견학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 1: 그러면 제품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학생 2: 학기 말에 학교 장터가 열리는데, 그때 제작한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 4: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학생 3: [가]

사회자: 네, 좋은 의견입니다.

4. 위 토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의자에게 질문하여 **발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뜻인가요?" 같은 발화임.

② 토의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 "어디서 나온 정보인가요?"

③ 토의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④ 토의자의 **상반된 의견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절충'은 타협 개념이다.

⑤ 토의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유도하고 있다.

당황스러운 오답률 7위를 기록한 문제. 4번 선지 선택 비율 30%. 두 학생의 발화의 연결 지점을 묻는 문제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학생 2'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② [B]의 '학생 3'은 '학생 4'의 의견에 찬성하며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사실 여기서 바로 멈춰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이 없었다면 '의견에 찬성'하는... 맥락 아닌가? 하면서 넘겼을 수 있겠다. 이걸 말하기 방법을 다루는 영역이고, 답의 근거는 굉장히 선명하게 제시되는 영역이다. 보통 '의견에 찬성하며'라는 말이 적절하려면, '그래요! 오 그거 좋네요!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 학생 4 이후에 나오는 학생 3의 발화에서 이미 불편했어야 함. (사실 학생4는 '화학적 분해'를 주장했고, 학생3은 그러지 말고 '업사이클링'을 하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③ [B]의 '학생 2'는 '학생 1'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학생 1'은 자기 의견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고, [B]의 '학생 4'는 자료에서 찾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간편하다'는 '자기 의견의 이점'이 되기에 충분하고, 학생4는 '보도 자료를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선택지.'
- ⑤ [A]의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에 동조하고 있고, [B]의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률이 높진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것 같은 문제다. 90점대 맞은 친구들도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거나 오래 걸린 영역으로 화법/작문 영역을 꼽았다. 특히 처음 보는 유형이면 제발 발문을 꼼꼼하게 잘 읽자. '자료를 모두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문제다.

6. <보기>는 '학생 3'이 토의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우리 학교 신문에 실린 새활용 제품 구매 의사(설문 조사)

구분	구매 의사 있음	구매 의사 없음	모르겠음
비율	71%	24%	5%

[자료 2] 인터넷에서 검색한 새활용 제품 사용 후기

-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라서 좋았다.
- 마감이 영성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자원순환을 위해서 분리배출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미 업사이클링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애 말대로 분리 배출을 할 수는 없음.
-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기분이 좋았지만 가격이 비싸 새 제품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 3] 새활용 제품 제작 업체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



폐현수막은 고급 천이 아니라 냄새가 나거나 이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기 전에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세척하면, 냄새도 없어지고 염료가 빠져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4개의 선지는 뭔가가 부족한 선택지임을 기다리면서 선택지를 소거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 ① 학생들의 높은 구매 의사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깔끔하게 마감 처리하고 독특하게 디자인한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 '냄새' 얘기가 없어서 그냥 지우면 된다.
- ② 새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원순환이 가지는 의미와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여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 ③ 학생들이 새활용 제품 구매에 관심이 많으니, 폐현수막을 깨끗이 처리한 후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도 훌륭한 제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 완벽한 선택지.
- ④ 깨끗이 세척하여 이염의 걱정을 없앴다는 점을 강조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새활용 제품이라는 점을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 가격 얘기도 없고, '구매에 관심' 많다는 것도 없음.
- ⑤ 폐현수막이라는 소재에 대한 편견이 새활용 제품의 구매 의사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위생적으로 세척했다는 점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문법 단독 문제 7~10]

오답률 1위(72%)를 차지한 슬픈 문제. 현재 고2들은 문법 바보가 분명하다. 이건 정말 정말 기초 수준의 문제다.

7.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단어를 분석하다 보면,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선,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특정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다음 ㉠ ~ ㉤을 분석해 볼까요?

하늘은 ㉠ 높푸르며, 햇살은 밝게 ㉡ 빛났다. 오늘은 꼭 그에게 고백하기로 ㉢ 마음먹고, 그와의 추억을 ㉣ 되살리면서 길을 걸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에 사랑이 ㉤ 샘솟는 것 같았다.

구분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접사	
㉠	·	높-, 푸르-	·	-며
㉡	·	나-	-았-	-다
㉢	·	마음	먹-	-고
㉣	되-	살-, -리-	·	-면서
㉤	샘	솟-	·	-는

: '어간'은 '높푸르-', '빛나-', '마음먹-', '되살리-', '샘솟-'이고,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이걸 모르면 진짜... 문법 수업할 때 열심히 듣자..) '-며', '-았-', '-다', '-면서', '-고', '-는'이다.

어근은 실질 형태소(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단위)와 같은 말이고, 어미, 접사, 조사를 제외한 것들이다.

어근 : '높-'(high), '푸르-', '빛', '나-', '마음', '먹-', '살-', '샘', '솟-'.. 나머지는 알아서 해 보자!

서술어 자릿수는 원래 어렵게 낸다면(사전을 기반으로 치사하게 낸다면) 감사조차 애매한 영역이다! 다만 서술어 기준으로 역추적을 하면서 접근해야 판단이 빠르다. 그저 문장 안에서의 '생략 가능 여부'만을 따진다면, 뭔가 구체적인 단어일수록, "이런 단어는 필요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8. <보기>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과제] 서술어의 '문형 정보' 추출하기

[탐구 과정]

- 특정 문장 성분을 생략할 경우 문장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한다.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서 문형 정보를 추출하되, 주어는 문형 정보에서 제외한다.

예)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 '책을'은 생략할 수 없고, '많이'는 생략할 수 있다.
- '읽다'의 문형 정보는 [...을]이다.

[자료]

㉠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예를 들어서, '아니다'에 초점을 두고, 뭐가 아닌데? 무엇이 뭐가 아닌데? 하면서 역추적을 통해서, A이/가(주어) B이/가(보어) 아니다로 두 자리 서술어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풀라는 말이다.

㉡ 소리가 모두에게 크게 들린다.

: '들리다'라는 서술어를 생각해 보자. 뭐가 들렸어?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들리다'라는 말에 '누구한테'라는 성분이 필요한지를 서술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가야 한다. '어떻게' 들렸는데? 이런 것도 웃기다. '크게'라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할 리 없음.

㉢ 친한 친구가 부반장이 되었다.

㉣ 나는 성공을 밀거름으로 삼았다.

㉤ 그는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다.

: 주다, 받다, 삼다는 대표적인 3자리 서술어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

- ① ㉠의 '사실이'는 '전혀'와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아니다'의 문형 정보는 [...이]가 되겠군.
- ② ㉡의 '모두에게'는 '크게'와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들리다'의 문형 정보는 [...에게]가 되겠군.
: 나도 처음부터 2번 선지 확실하게 고른 것이 아니고, '들리다'의 의미에 '누구에게'라는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서 보류 하고 나머지 선지 다 읽고 와서 골랐다.
- ③ ㉢의 '부반장이'는 '친한'과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되다'의 문형 정보는 [...이]가 되겠군.
- ④ ㉣의 '성공을'과 '밀거름으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삼다'의 문형 정보는 [...을 ...으로]가 되겠군.
- ⑤ ㉤의 '나에게'와 '선물을'은 '멋진'과 달리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주다'의 문형 정보는 [...에게 ...을]이 되겠군.

오답률 3위(60%).. 근데 원래 고2 모의고사에서는 11월까지 문법이 항상 최상위 오답률을 쓸어가는 편이다. 내신에서 그 범위가 겹쳤는지 여부에 따라 애들의 망각 정도가 좌우되는 듯하다.

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선생님: 문장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때 심표의 사용, 조사나 접미사의 추가, 어순의 변경, 문장 성분의 보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다)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를 시키는 '학습 활동' 문제는 마지막에 선생님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중의성을 없애서 하나의 의미로 귀결시켜라!

(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 '사랑하는'이 친구를 수식하는지, 동생을 수식하는지 중의적이라는 말이네.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의미 ㉠
 내가 친구의 동생을 사랑한다는 의미

(나) 아이들이 소풍에 다 오지 않았다.
: 아래에 ㉡, ㉢을 통해 중의적인 두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소풍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 ㉡
 일부가 소풍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 ㉢

(다) 세 사람이 모기 두 마리를 잡았다.
[잡은 모기가 2마리라는 의미 ㉣
 잡은 모기가 6마리라는 의미 ㉤

- ① ㉠: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로 수정한다.
: 심표를 찍었기 때문에 '사랑하는'의 수식 범주가 '친구'로 한정되므로 올바른 수정. 27%의 학생들이 고른 선택지인데, 이건 내 생각에 그냥 발문을 제대로 안 읽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못 했던 경우도 많을 것 같다.
 - ② ㉡: '아이들이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로 수정한다.
: 솔직히 애매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다'의 위치가 바뀌면 '전부' 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가? 보류.
 - ③ ㉢: '아이들이 소풍에 다는 오지 않았다.'로 수정한다.
: '일부'의 의미로 바뀐 것 맞음.
 - ④ ㉣: '세 사람이 함께 모기 두 마리를 잡았다.'로 수정한다.
: 애도 처음엔 좀 보류였음.
 - ⑤ ㉤: '세 사람이 모기 두 마리씩을 잡았다.'로 수정한다.
: 확실.
- 2번 선지 vs 4번 선지에서, '함께'라는 말이 추가됨으로써 함께 '두 마리'를 조졌다고 충분히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다'라는 단어가 이동했다고 '오지 않았다'를 수식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딱히 변한 것이 없다는 판단. 2번 정답으로 선택했던 문제.

솔직히 이건 틀리면 할 말이 없는 거 알지

10. <보기>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숲길[습길], 있던[인편]
- ㉡ 닭죽[닥죽], 뺨고[뺨:꼬]
- ㉢ 꽃잎[꼇닙], 앞일[암닐]
- ㉣ 닳는[달른], 얹네[얹:레]

- ① ㉠, ㉡: 뒤 음절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 [교체] 된소리 되기 현상이다.
- ② ㉠, ㉢: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일곱 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 ③ ㉢, ㉣: 뒤 음절의 첫소리에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첨가] ㄴ첨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에는 없다.
- ④ ㉡, ㉣: 음절 끝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나도 처음 풀 때는 10분이면 풀겠지~ 싶었는데 첫 세트가 생각보다 시간을 먹어서 좀 더 걸렸었다. 90점대라면 목표 시간은 13분 이하, 80점대 이하라면 목표 시간은 15분이하로 잡아 보자.

[독서1 (가)(나)] 지문 난이도 중상, 문제 난이도 중하

2016년 고3 4월 교육청 지문과,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유사 내용 지문을 맨 뒤에 첨부함. 풀어볼 것.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국제 거래 공통 기준 - 비엔나 협약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 물품 매매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이 서로 달라, 동일한 계약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 즉 준거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 시기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제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약이 '비엔나 협약'이다.

: 어렵지 않은 1문단이다. A나라 사람과 B나라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무역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나라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통 기준을 만든 것이 바로 '비엔나 협약'이다.

[2문단]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

비엔나 협약은 국제 거래에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며, 계약의 대상은 물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용역 거래, 주식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품 거래라 할지라도 매매의 목적이 개인용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각국 소비자 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비엔나 협약은 가입한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거래에 적용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 배제할 수 있다.

: 적용 범주에 대한 2문단이다.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거래'에서, '개인용'이 아닌 '물품'만 적용된다! (용역(사람), 주식 이런 거 안 됨. 왜 개인용이 아니냐? '소비자 법'과 충돌해서) 그럼 뭐 기업용이나 국가용이려나.

[3문단] (1)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비엔나 협약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다룬다. 이에 따르면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없이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이때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물품과 수량, 가격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단순 문의나 거래 제의는 청약이 되지 못하고, '청약의 유인'이라 하여 청약과 구별된다.

: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3문단. 당연히 비엔나 협약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다뤄야 한다. 그게 국가마다 다르면 문제가 생겨서 만든 조약이니까. 먼저, '계약의 성립'이란 '계약서'가 없어도 A가 청약(계약을 청하다)하고 B가 승낙하기만 해도 된다. (선택지에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볼 것이 뻔함) '청약'의 조건이 3가지 정도 있고 (기억 안 날 것 같지만), '단순 문의' 같은 것들은 '청약'이 아니다. (문제에서는 단순 문의나 거래 제의 같은 것이 나오고 청약이냐 아니냐 물어볼 것이 뻔함) 각각 어디서 물어봤는지 혼자 찾아봐도 하자.

[4문단] 승낙에 관하여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마찬가지로 서면, 구두,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하므로,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의사표시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며, 이를 '대응 청약'이라고 한다.

이 문단을 읽기 시작했을 때, 아직도 '계약의 성립' 얘기 중이네, 다음 문단에서는 '성립 시기'를 말하겠네, 하고 거시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승낙은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대응 청약)이다. (그러니 새로운 승낙이 다시 필요하다.)

[5문단] 무역계약 성립 시기 : 이메일이 도착함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비엔나 협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효력 발생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며, ㉡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메일함에 전자메일이 도착한 것만으로도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효력이 ㉢ 발생하지 않는다.

: 드디어 '성립 시기'를 말하고 있다. '승낙'의 메일이 도착하는 순간 '무역계약'이 성립한다. 읽든 말든. ('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됨. 디테일 문장.)

난 여기까지 읽고, 11번, 12번, 13번, 15번을 풀었음. 사실 어려운 시험이라면/혹은 네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면 그냥 14번을 버리고 애네만 풀고(11번은 (나)를 좀 훑으면 답 확정 가능) 넘겼어도 됨.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약의 **성립 시기에 따른 매매계약의 유형**을 설명하고, (나)는 국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 조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바로 지음.
 - ② (가)는 국제 규범의 **적용 범위를 한정**한 뒤 규범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고, (나)는 무역 관행이 국제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 적용 범위 한정된 것은 맞는데, 세부 항목? '세부'가 애매해서 바로 보류.
 - ③ (가)는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설명하고, (나)는 무역 거래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한 정형 거래 조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완전 맞고.
 - ④ (가)는 **무역계약의 개념**을 밝힌 후 **계약 성립 이후**의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나)는 정형 거래 조건의 개념을 밝힌 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 바로 지음. 선지를 눌러 읽어야 빠르게 처리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근거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바로 지음.
- 이렇게 2번과 3번을 살린 채로 넘어감. (나) 읽고 3번을 정답으로 확정함.

12.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에 따라 동일한 무역계약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②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 무역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③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에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피청약자가 **카격을 변경한 의사표사는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쉬운 문제. 뭔가 바뀌면 그건 '(무조건적)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라고 했었음.
- ⑤ 용역 거래, 주식 매매는 원칙적으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문에 이유가 뭔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맥락으로 소거하면서 풀어야 함.
- ① 국제 거래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보다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확인했는지'랑 무슨 상관이지? 넘긴다.
- ② 도달주의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 매일 안 읽어도 된다며.
- ③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의사표시의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확인한 때**이기 때문이다.
: '회신'은 답장한다는 뜻이다. 자가 수신했다고 답장까지 해야 한다고? 안 읽어도 된다며.
- ④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신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⑤ 수신자의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선택지. 결국 이 '비엔나 조약'은 각국의 법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배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은 맥락 상 너무나 어울리는 이유가 된다. 정답으로 결정.

15. ㉠ ~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나중으로 미룰'**이라는 의미이다.
: 미친놈이다. 이건 그냥 어휘 뜻만 알아도 답. 다른 선지 안 봄.
- ② ㉡: 승낙의 효력이 '생겨나지'라는 의미이다.
- ③ ㉢: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나누어서 맡는'이라는 의미이다.
- ④ ㉣: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라는 의미이다.
- ⑤ ㉤: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선박을 매수인이 '가리켜 확실히 정한'이라는 의미이다.

(나)

[1문단] 인코텀스?

‘정형 거래 조건’은 국제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다. 거래 당사자는 여러 조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합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역의 관행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통일된 규칙인 ‘인코텀스’를 기준으로 삼는다.

: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잡히진 않지만, ‘국제 상거래’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방향의 내용이니.

[2문단] 위험 이전과 비용 분담의 (국제적) 기준

인코텀스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여, 물품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해 준다.

: (가) 지문이랑 비슷하네. 국제 상거래에서 ‘기준’을 줘서 ‘물품 인도’에 대해서 너랑 나랑의 ‘관행’이 달라서 생기는 분쟁을 없애주는 것이다. ‘위험의 이전’을 먼저 얘기하고, ‘비용 분담’을 설명하겠네.

‘위험의 이전’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 ‘위험’은 그냥 물건 ‘파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일단 파는 애(매도인)가 그 물건을 건네줄 때까지는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을 갖지만, 결국 사는 애(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되겠지.

‘비용 분담’은 물품이 매도인을 출발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 등을 ©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거래 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된 때 위험이 이전되며, 이때가 대체로 비용 분담의 분기점이 된다.

: ‘물품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전달했다는 거네. 물품을 전달하는 순간, 책임은 사는 애(매수인)한테 넘어가고, 보통 그때부터 드는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기 시작함.

[3문단] 정형 거래 조건이 4가지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으로는 EXW(Ex Works),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DDP(Delivered Duty Paid)가 있으며, 매매계약을 할 때 ‘FOB 목포항’과 같이 정형 거래 조건에 지정된 장소 또는 항구를 병기한다. 이때 EXW와 DDP는 물품의 인도 장소를, FOB는 선적항을, CIF는 목적항을 기재한다. ✓

: 네 가지가 있다. 어찌고 저찌고... 기억날 리가 없다. 마지막 문장 조건은 문제 풀 때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냥 체크/해 봤다.

[4문단] 4가지의 각각 의미 : 점점 매도인의 의무가 커짐

EXW는 ‘공장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두는 때 이루어진다. 물품의 인도 이후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까지 매수인이 ④ 책임지므로, 매도인은 최소의 의무만 부담한다.

: 아 이런 식이야? 언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비용’은 언제부터 매수인이 내는지 이런 거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 듯.

FOB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 후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FOB와 물품의 인도 시기가 동일하다. 하지만 FOB는 물품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한다. 반면에 CIF는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때에 이루어진다. 물품의 인도가 지정 목적지에서 일어나 매도인이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의 납부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매도인은 최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사실 매우 쉬운 문단이다. EXW - FOB - CIF - DDP 점점 갈수록 매도인의 의무(비용) 부담이 많아진다. 매수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중간에 FOB와 CIF가 겹치는 게 있긴 한데, 기억날 리 없기 때문에 체크만 해 놓는다. 여기서 터졌을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읽으라고.

[5문단] 위험 vs 분담 비용 중에 선택해라!

인코텀스는 거래 당사자의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므로, 무역계약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조건을 선택하는데 활용된다. 어떤 물품을 EXW 또는 FOB 조건으로 거래한다고 할 때, EXW 조건일 때의 물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산 원가에 매도인의 이윤을 더한 것이고, FOB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은 EXW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두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이 다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과 통관 과정의 위험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통관: 물품을 수출·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의 허가를 받는 일.

: 그리고 DDP는 거기에 보험료에 관세 납부까지 더한 거겠지. (거래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경제 주체들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체들이라서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당연히 EXW - FOB - CIF - DDP 점점 갈수록 비싸진다. EXW를 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대신에 위험 부담을 많이 감수해야 한다. DDP는 안전하게 나한테 배송되지만(우리가 하는 국제 배송은 거의 이거) 대신 더 비싸다.

생긴 건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쉬운 문제였음. 같은 지문이었어도 문제는 훨씬 어렵게 출제할 수 있었다!

14.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국 기업의 '갑' 대표는 A 물품 1만 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수출 회사 대표 '을'에게 물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전자메일로 문의하였다.

: 이거 뭐 문의는 청약이 아니다~ 이런 내용 출제하려고 한 부분이겠지. 1번 선지 컷.

이에 '을'은 A 물품 1만 개의 EXW, FOB, CIF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을 각각 제시하며, 'FOB LA항' 조건으로 거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전자메일을 갑에게 보냈다. 다음날 '갑'은 ㉠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전자메일을 을에게 발송했다.

※ 한국과 미국은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며,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갑'의 첫 번째 전자메일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문의에 해당하므로 청약으로 볼 수 없겠군.
: 선지가 너무 친절하다.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이런 수식어가 있었기 때문에 쉬워진 것.
- ② ㉠가 '을'이 제시한 'FOB LA항'이고, '갑'의 두 번째 전자메일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을'에게 도달했다면, '을'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계약은 성립하겠군.
: 그럼 '무조건적' 승낙이네? 이메일이 도착한 순간 성립한다.
- ③ ㉠가 '을'이 제시한 'FOB LA항'이라면, CI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박에 A 물품을 적재한 후 A 물품에 대한 위험이 '갑'에게 이전되었겠군.
: FOB랑 CIF가 겹치는 그 부분에서 지문에 잠깐 돌아가서 확인. '선박'에 놓는 순간 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같다.
- ④ ㉠가 'CIF 부산항'이라면, 'FOB LA항' 조건과 달리 물품 가격에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후 부산항까지 '을'이 부담하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겠군.
: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확인. CIF와 FOB에서 CIF가 '을'이 부담하는 것이 더 많았다.
- ⑤ ㉠가 'DDP 부산 공장'이라면, '갑'이 그 조건을 선택한 이유는 '을'이 제시한 조건보다 물품 가격이 저렴하여 '갑'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군.
: 제일 비싼 것을 선택한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일 수는 없다. 정답.

[독서2 과학] 지문 난이도 중상, 문제 난이도 중

읽기 태도를 학습하기 매우 좋은 지문이다. 인과 사슬을 읽어내고, 이 미지 그리기를 언제 해야 하는가?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문단]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장과 발달을 조절함

사람의 일생에 성장과 발달, 노화의 과정이 있듯이 식물도 생장과 발달, 노화의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식물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여러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호르몬 가운데 '옥신'은 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옥신인 '인돌아세트산(IAA)'은 주로 줄기 상단부에서 생성되어 하단부로 수송된다.

: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신'이고 그 중 IAA라는 놈이 있다. (노화는 어떤 호르몬??) 줄기 이미지를 그리고, 그 위에서 생성된 IAA가 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그림을 그려본다.

식물 세포막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옥신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 옥신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극성 수송'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중력과는 무관한 수송 방식으로, 식물체 내 옥신 이동의 기본 원리가 된다.

: '수송체 단백질'은 '옥신'(그 중 IAA도 포함)의 엘리베이터다. 그 놈이 '중력과는 무관'하게 수송한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건 완전 선택지 감이지? 중력 때문에 옥신이 아래로 움직이냐고 물을 거 아냐?)

[2문단] 인과 사슬 독해의 기본 : 시작과 끝을 잡고, '끝'에 수렴하게 읽어 낸다.

이러한 이동 방식은 옥신이 특정 부위에 분포하게끔 하여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옥신은 세포벽의 산성화를 유발하는데,

: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서 잠깐 끊는다. 왜 세포벽을 '산성화'하지? 산성화는 안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면 넌 완전히 독해 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옥신'이 뭐야? 식물을 '생장'하게 하는 놈이다. 지금 이 나열의 끝에는 식물의 '생장'이 있을 것이고, 산성화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생장에 필요한 첫 단추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문단이 굉장히 가볍게 들어온다.

이때 활성화된 '익스팬신'이라는 단백질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 섬유 사이의 결합을 약하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벽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삼투현상에 의해 세포 내부로 물이 유입되면, 그 결과 내부 팽압*을 견디는 범위 내에서 세포의 생장이 이루어진다.

: '익스팬신'이라는 단어도 expand에서 온 거 아니겠냐. 알지? 산성화가 되면 애가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뽕뽕해진다. 그러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너무 쉽다.

[3문단] 옥신의 농도

옥신은 농도에 따라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한다.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는 기관별로 다르며, 옥신의 농도가 일정 범위까지 증가할 때는 생장 촉진의 정도가 높아지지만, 최고 생장점을 지난 이후에는 생장 촉진의 정도가 낮아지다가 일정 농도에 이르면 생장이 억제된다. 가령 뿌리는 줄기보다 옥신의 감수성*이 높아 줄기의 생장이 촉진되는 농도에서도 이미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식물의 눈은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가 뿌리보다 높고, 줄기보다 낮다. 따라서 동일한 옥신 농도라도 기관별로 다른 생장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옥신이 많다고 생장이 마구마구 되는 것은 아니고, 농도에 따라 다르다. 옥신(호르몬)이 많아지면 점점 생장을 촉진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가 되면 점점 덜 생장하다가, 나중에는 '억제'된다. (생장이 억제된다고 해서 애가 쪼그라드는 것은 아니다.) 뿌리가 '옥신의 감수성이 높'다는데, 그냥 민감하다는 거다. 조금의 옥신으로도 잘 자란다는 말이다.

* 뿌리(눈(??))(줄기 순으로 왼쪽이 제일 민감하고, 더 빨리 생장이 시작되고 더 빨리 억제된다. (디테일 문장)

[4문단] 방향성 생장 - 옥신은 빛을 싫어해

또한 옥신은 빛이나 중력과 같은 환경 자극에 따라 방향성 생장을 유도한다. 줄기가 빛 쪽으로 굽는 '굴광성'은 옥신이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분포하면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생장 반응의 결과이다. 줄기에 빛에 의한 방향성 자극이 주어지면, 극성 수송을 따르던 옥신의 일부가 재분포된다.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인 '포토포핀'은 빛을 받은 쪽에서 활성화되어, 그늘진 쪽으로 옥신 수송을 유발한다. 따라서 그늘진 쪽의 옥신 농도가 높아져 생장이 촉진되면, 줄기가 빛을 향해 굽게 된다.

: 옥신은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포토포핀'이라는 놈이 빛이 있는 쪽에서 알려주면 옥신이 그늘진 쪽으로 옮겨간다. 그늘진 쪽에서 생장이 되면 그늘진 쪽만 쭈욱 늘어나면서 빛 쪽으로 휘게 된다. (이미지 직접 그려 보기!!)

[5문단] 굴지성 - 옥신은 중력은 좋아함.

중력에 의한 방향성 생장인 '굴지성' 역시 옥신의 비대칭적 분포에서 비롯된다. 줄기와 뿌리를 수평으로 놓으면, 중력 자극을 감지하는 세포 내 녹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옥신도 그쪽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쪽 세포가 더 성장하여 줄기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굽는 '음의 굴지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뿌리는 옥신에 대한 감수성 차이로 인해 뿌리 아래쪽 세포의 생장이 억제된다. 그 결과 뿌리가 중력 방향으로 굽는 '양의 굴지성'이 나타난다.

: '줄기와 뿌리를 수평으로 놓으면'은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상태다. 여기도 아까 광수용체처럼 중력을 감지하는 애(녹말체)가 있다. 근데 옥신은 중력을 좋아한다! 같이 따라가서 아래쪽에서 옥신이 많아진다. 보통 그래서 줄기는 중력 반대 방향(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뿌리'는 아까 말했듯이 옥신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뿌리는 거꾸로 중력 방향(아래쪽)으로 자란다. 19번의 (나) 이미지를 봤을 때 쾌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6문단] 드디어 등장한 식물의 '노화'

한편 옥신은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탈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은 ㉠ 두 호르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옥신은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에틸렌이라는 기체 호르몬은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을 촉진한다. 잎이 떨어지는 부위인 탈리층에서는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잎의 무게나 바람에 의해 탈리층에서 세포 간 분리가 일어나고, 이때 탈리층에서는 코르크층이 형성되어 병원균이 식물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어린잎에서는 옥신의 농도가 높아 탈리층 세포의 에틸렌 반응성이 낮게 유지된다. 그러나 잎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옥신의 생장과 수송이 감소하면, 탈리층은 상대적으로 에틸렌에 더 민감해져 탈리 현상이 강화된다.

* 팽압: 세포벽을 긴장시키고 식물체 모양을 유지하는 힘.

* 감수성: 외부 자극이 일정한 역치에 도달했을 때 생리적 반응이 유발되는 성질.

: 1문단에서 열었던 글의 큰 틀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중이다. 마지막 과정은 식물이 늙어가면서 잎이 떨어져 가는 것이다. '옥신'은 생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새로 등장한 '에틸렌'은 세포벽 분해를 돕는 호르몬이다. 두 호르몬이 역작용을 하는데, 어린 잎은 옥신이 많아서 에틸렌이 노화를 시키지 못하고, 늙은 잎은 옥신이 줄어서 에틸렌이 탈리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깔끔하고 좋은 글이다!

16.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극성 수송은 중력의 영향으로 식물체 내에서 옥신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본 원리이다.

: 널 만한 선택지여서 바로 고르고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 않았음.

② 세포벽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삼투현상이 일어나면 물이 유입되어 세포의 생장이 이루어진다.

③ 옥신은 세포막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한 단백질들을 통해 이동하면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한다.

④ 탈리층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어 형성된 코르크층은 병원균이 식물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⑤ 탈리층에서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머지 선지가 나의 이해와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자.

오답률 8위 (그래프를 읽을 때에는 X축과 Y축을 제일 먼저 잡고, 원점이 있다면 그것도 꼭 잡아 놓자.)

17.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옥신의 농도 증가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는 눈, 뿌리, 줄기 중 하나로, 생장 반응 정도가 0보다 높으면 '생장 촉진'을, 낮으면 '생장 억제'를 나타낸다.

: X축은 '옥신의 농도'이고, Y축은 생장 정도다.

: 당연히 ㉠가 뿌리, ㉡가 눈, ㉢가 줄기다. 뿌리가 제일 민감하다고 했었다. '0보다' 높으나 낮으나로 판단하라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선택지로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1번, 2번 선지를 처리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천천히 상황 판단을 하면서 사고 회로를 형성하면 된다.

- ① 옥신의 농도가 M₁에 도달한 이후 M₂에 이르기 전까지, ㉠는 생장 억제가 나타나지만 ㉡는 세포벽 섬유 결합이 느슨한 상태이겠군.
: 뿌리는 농도 M₁에서 이미 0이 되고 그 이후로는 0보다 낮기 때문에 생장 억제가 나타난다. 눈은 생장이 M₁에서 피크를 찍고 점점 생장이 느려지긴 해도 계속 성장한다. '세포벽 섬유 결합이 느슨하다'는 것은 아까 인과 사슬 중간에 있었던 내용인데, 말랑말랑해서 자라난다~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선지가 아니다.
- ② 옥신의 농도가 M₂를 초과한 구간에서, ㉠는 생장 촉진이 나타나지 않지만 ㉢는 세포 내부 팽압을 견디며 세포 성장 촉진이 가능한 구간이 있겠군.
: 그렇다. 1번 선지를 이해하면서 M₂는 이제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농도임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의 생장 반응이 시작된 이후 옥신 농도가 M₁에 이르지 않았다면, ㉠는 같은 구간에서 익스팬신 단백질의 작용이 지속되어 생장 촉진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않겠군.
: 그랬겠지. '눈'도 생장이 시작된 것은 '뿌리'가 피크를 찍을 즈음이다. M₁의 농도 이하로 머무른다면 눈과 뿌리 모두 생장 촉진 상태다.
- ④ ㉡는 ㉢보다 낮은 옥신 농도에서 생장 억제 반응이 먼저 시작되고 세포 성장 촉진 상태가 먼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그렇다.
- ⑤ ㉢는 생장 촉진이 억제로 전환되는 지점이 ㉡보다 더 높은 옥신 농도에서 형성되므로, 세포벽 산성화로 인한 반응이 먼저 나타나 옥신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군.
: 답이 너무 하찮게 나왔다. 옥신에 대한 감수성은 뿌리가 제일 높다. 농도가 높아야 그제야 줄기는 생장을 시작한다.

18. ㉠을 고려할 때, 식물의 탈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두 호르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 옥신이 많으면 에틸렌이 약하고, 옥신이 적으면 에틸렌은 강해진다.
- ① 옥신이 유지하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면서, 에틸렌 반응성이 높아져 세포 분리가 유도되는 과정이다.
: 옥신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기대했는데, '조직 결합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과정을 생략한 느낌이어서 불편했음. 그래서 다른 선지 빠르게 소거하고 답으로 결정함.
- ② 옥신의 분비량 증가가 에틸렌의 작용을 억제하여, 탈리층의 에틸렌 민감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다.
- ③ 옥신과 에틸렌의 농도가 모두 높아지면, 탈리층에서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어 세포 분리가 유도되는 과정이다.
- ④ 에틸렌의 농도가 증가하면, 옥신의 농도 변화와 관계없이 탈리층에서 세포 분리가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과정이다.
- 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에틸렌에 대한 반응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옥신에 의한 조직 결합의 유지 상태가 달라지는 과정이다.
: 모두 '탈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나 잘못됨. 매우 빠르게 소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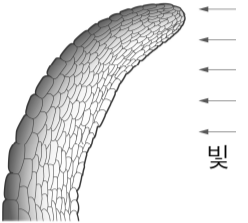
오답률 4위(60%)인 데에는 과물같은 그림 때문에 바로 넘겨버린 비율이 적지 않은 듯하다.

19.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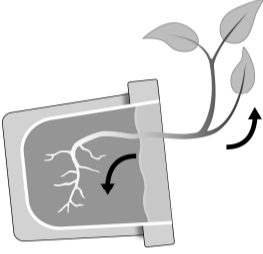
<보 기>

다음은 어떤 식물체의 생장을 관찰하여 기록한 식물 관찰 일지 중 일부이다.

(가) 2026. 05. 00.
... 어린 식물의 줄기 오른쪽에 광원을 배치하고, 변화를 지켜본 결과 줄기의 윗부분이 서서히 빛 쪽으로 기울어지며 굽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



(나) 2026. 06. 00.
... 화분을 눕혀 놓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줄기는 위쪽 방향으로 굽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뿌리는 아래쪽 방향으로 굽어 내려가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



: (가)는 굴광성, (나)는 굴지성에 대한 그림이네. (가)는 그늘진 부분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었고, (나)는 줄기랑 뿌리가 각각 방향을 다르게 해서 자라는 것이었다. 그 원리는 뿌리의 옥신 민감도 때문이었다. 역시나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기 때문에 개소리가 4개 있을 거라는 태도로 접근한다.

- ① (가)에서는 옥신이 환경 자극에 따라 광원 반대 방향에 있는 포토포피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줄기의 윗부분에 방향성 생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는 옥신의 극성 수송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광원에 따라 옥신의 분포가 증가한 쪽으로 줄기의 굽는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옥신의 분포가 증가한 쪽'은 그늘진 쪽이다. 굴광성은 빛의 방향으로 굽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서술임.

- ③ (나)에서는 줄기가 위쪽으로 굽는 음의 굴지성과 뿌리가 아래쪽으로 굽는 양의 굴지성이 모두 중력 자극의 방향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미친 소리임. 중력이 뿌리와 줄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되냐는 말이다.

- ④ (가)에서는 줄기의 그늘진 부분의 생장이, (나)에서는 눕힌 줄기의 아래쪽 부분의 생장이 더 크게 일어나 굽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가)는 당연하고, (나)에서 '줄기는 중력 방향 부분 그대로 생장이 더 크게 일어난다. 문제는 '뿌리'는 거꾸로였다는 것. 어쨌든 이진 맞는 말.

- ⑤ (가)에서는 옥신의 극성 수송이 줄기의 굽는 방향을 결정하고, (나)에서는 중력에 따른 녹말체의 위치 차이가 줄기와 뿌리의 굽는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녹말체는 항상 아래였을 걸?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글을 주다니. 지문 난이도 최하. 문제 난이도 최하. 틀릴 수 없다!! 틀려서는 안 됐다! 매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20세기 후반의 매체 철학자인 **빌렘 플루서**는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코드화한 것을 '매체'로 보았다. 여기서 '코드화'란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로 합의된 기호를 일정한 규칙 체계인 코드에 따라 배열하는 과정을 말한다.

: 여기까지는 구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체'는 내가 아는 대중 매체와 비슷한 것인가? 기호를 코드에 따라 배열? 이것이 세계를 보는 시각? 이 정도의 방향성만 잡았으면 충분.

그는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는 매체가 이미지에서 문자를 거쳐 다시 이미지로 변화해 왔다고 보았는데, 문자 이전에 동굴 벽이나 종이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를 '전통적 이미지'로, 문자 이후의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술 이미지란 과학 기술을 매개로 하여 인화지나 모니터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로, 과학 이론에 따라 제작된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다. 플루서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인화된 사진에 주목하여 기술 이미지가 주도하는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진 철학을 전개하였다.

: 여기서 잡으면 된다. 매체를 크게 전통적 이미지인 벽화나 종이 그림 VS 기술 이미지 - 사진/카메라 등등

'사진 철학'의 방향성(결론) :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2문단]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이미지라고 여기는 태도를 비판했다. 이는 사람들이 기술을 전통적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술 이미지와 전통적 이미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 그러니까, 전통적 이미지는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만, 기술 이미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네.

그에 따르면, 전통적 이미지는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의 생산자가 실재하는 대상을 보고 떠올린 심상을 벽이나 종이나 같은 물리적 표면에 코드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불과 들소가 그려진 동굴 벽화에서 불과 들소의 형상은 각각 불과 들소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들은 실제 세계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수용자는 이를 대부분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생각한 그대로의 서술임. '직관'은 딱 보면 안다는 뜻이다.

[3문단]

이에 반해 기술 이미지인 사진은 시각적 환상을 창조하기 위해, 필름 위의 입자들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과 화학적으

로 반응하여 만들어진 '점'들이 인화지에 투사되는 방식으로 코드화한 것이다. 결국 사진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점들은 세계를 지시하고 있지도 않다. 더 나아가 플루서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 없이 점들의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합성 사진을 제시하며, 기술 이미지가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 전통 이미지는 불 그림이 실제 세계의 불을 지시하지만, 기술 이미지인 '사진'은 '점들'이 화학반응을 할 뿐,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음. 세계를 지시하지도 않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기술 이미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읽어야 한다.

[4문단]

그는 카메라가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객관적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카메라 내부에서의 코드화는 결국 장치 설계자가 사전에 계획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루서는 카메라가 내부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촬영자는 장치 내부에서 사진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모른 채, 장치가 제공하는 범주 안에서 셔터 속도나 조리개 값 등만 선택하게 된다. 결국 플루서는 인간이 장치를 단순히 작동하는 '수행인'으로 전락하여,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카메라의 '코드'는 카메라를 만든 '장치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주관적인* 것이고, 나(촬영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찰칵찰칵 찍기만 하는 '수행인'이 될 위험이 있다.

(*객관적이라고 간주하면 안된다는 말을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카메라의 과정이 객관적이라면, 그저 도구로써만 기능한다면, 그 '주체성'은 모두 셔터를 누르는 촬영자의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장치 설계자'의 내재된 코드가 존재하기에 위험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워낙 쉬웠지만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 수 있어서 적음.)

[5문단]

따라서 그는 기술 이미지와 장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사진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는 장치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촬영자가 장치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생산하고, 수용자는 사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사진 철학은 장치의 자동화가 빨라지는 시대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가 설 자리, 즉 인간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뭐라는 지는 알겠다. 와닿지 않을 뿐. 어떻게 카메라나 사진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서 좀 아쉬움.

20. 밑글의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① 사진 철학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변한 적 없음. 답. '변화'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다. 항상 Before와 After을 생각하기 바란다.

② 촬영자는 왜 수행인으로 전락하는가?

③ 플루서는 매체를 무엇이라 정의했는가?

④ 전통적 이미지와 기술 이미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⑤ 플루서가 컴퓨터 합성 사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1. 빌렘 플루서의 관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진은 장치를 통해 점들이 일정한 규칙 체계에 따라 배열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② 전통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지시하는 바를 대개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사람들은 장치의 불투명성 때문에 전통적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보았다.

: 잘 읽어 보자. '장치'의 불투명성이 '전통적 이미지'를 수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겠냐. 벽화인데?

④ 촬영자는 장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문자가 의사소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떠올린 심상을 코드화했다고 보았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갑**: 사진이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촬영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은 피사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 : **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글이랑 좀 다름.
- **을**: 사진은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이 필름 위의 입자에 한 점 한 점 대응하여 만들어지므로, 피사체가 촬영 당시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병**: 촬영자가 선택한 사진의 화질과 크기, 카메라의 시점 등으로 사진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감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① '갑'은 플루서와 달리 사진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군.

: 이런 선택지를 파악할 때는, [A는 B와 달리 P라고 본다]의 구성에서, 일단 [A는 P라고 본다]가 맞는지 빠르게 파악한 후에, [B는 그렇지 않다]인지 아닌지를 2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차근차근하지 않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탈난다. 그래서 답이다. 틀릴 수 없는 선택지다. 난 풀 때 이후 선지는 안 봤다.

- ② '을'은 플루서와 같이 사진 속 대상은 촬영 당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군.
- ③ '을'은 플루서와 달리 사진이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점들로 이루어진 시각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는군.
- ④ '병'은 플루서와 같이 수용자의 감상이 능동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군.
- ⑤ '병'은 플루서와 달리 카메라가 제공하는 범주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군.

: 나머지 선택지들은 하나하나 따져 보자.

2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문장 틀 : 매체가 문자를 ㉠거쳐 이미지로

- ① 산길에서 흙덩굴이 밭에 거쳤다.
- ② 우리는 어린이를 거쳐 어른이 된다.
- ③ 그는 집을 거쳐 학교로 가는 길이다.
- ④ 학생들의 모든 글은 선생님의 손을 거쳐야 했다.
- 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특별히 거칠 일은 없다.

28 수능을 대비함에 있어 신유형 그 두 번째. 학생이 두 글을 읽고 글을 쓰다! [독서+작문] 융합형이다. (가)와 (나)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글이었어서 당황스러웠던 것만 빼면 쉬웠다.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읽는 태도를 달리 해야 한다. 건의문을 쓸 거다. 그냥 무식하게 비문학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와 (나)는 건의문인 (다)를 쓸 재료를 생각하자. 사실 이건 신유형이라 전형적인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은 없지만, (다)를 먼저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가)

학교 복도에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공용 간식을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 공용 간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만큼 내 몫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평소엔 간식을 잘 먹지 않던 학생들도 가져가려 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간식을 가져가는 바람에 공용 간식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배제성'이 없고, 한 개인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 자원'이라 한다. 예를 들어 깨끗한 물과 공기 등의 자연 자원이나 무료 주차장, 공중화장실 같은 시설물이 이에 해당한다.

: '공유 자원'의 특성이다. '배제성'이 없다는 말은 [누구나 공짜], '경합성'은 [소모성] 정도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다.

공유 자원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관리되지 않는 개방된 목초지가 있고 거기에 동물을 방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방목하는 가축을 계속해서 늘리려 할 것이다. 목초지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가축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목초지는 풀을 스스로 보충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황무지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해 공유 자원은 남이 사용하는 만큼 내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관리 주체가 없어 쉽게 훼손된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용량 규제나 부담금 부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자치 규약 수립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공짜고, 소모되다 보니 막 쓰고 그럼 결국 '자원'이 아예 사라지는 '비효율성'이 초래됨. 정부 차원의 규제나 자치 규약이 필요함.

엄청 쉬운 글이다. (가) 읽고 풀 수 있는 24번의 1~3번 선지 처리.

(나)

음료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 등의 개인 컵을 이용하면 음료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텀블러를 이용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 환경 오염 줄이는 건 좋지만, 텀블러 깨끗하게 쓰렴.

미국의 한 교수는 텀블러 등의 다회용 용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박테리아 등의 세균**이 증식하여 인체에 각종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이나 손에 있는 미생물이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생물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음료 가 남아 있는 상태로 뚜껑을 닫아 밀폐된 채로 상온에 두면, 그야말로 세균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텀블러를 사용한 후 **식기 세척기나 솔을 활용해 용기 내부를 자주 씻고 고온에서 완전히 건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텀블러를 매일 꼼꼼하게 세척**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 텀블러를 잘 씻자! (이 정도 밀도인 지문 독해 - 1분 미만이어야 함.)

24번 답 결정.

(다)

[1문단]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학생회장** ○○○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누가, 누구한테, 뭘 위해 '건의'하는지는 초반에 바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잡아야 '작문'의 방향성을 잡기 편하다.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에게,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글이고, 그 내용을 위해서 (가)와 (나)를 사용할 것이다.

[2문단]

교장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일회용 컵을 대신하여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장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어요. 텀블러 자주 써요. (근데 세척기가 없어요)

[3문단]

그러나 우리 학교는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꼭지와 세면대 사이의 공간이 좁아 씻기 어렵고, 세제나 수세미 등의 세척 용품도 없어 물로만 행귀내고 있습니다.

: 문제 상황 제시하는 문단. (그럼 우리 건강은 어떡합니까!)

[4문단]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텀블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층의 휴게 공간과 식당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위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해결책 -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달라!

[5문단]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텀블러 세척기를 일부 학생들이 **공유 자원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여, 세척기가 **금방 고장 나거나 파손**될 거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 (미리 선수처서 제시 후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작문 방법) 옳! '공유 자원이라고 함부로 사용'한다고?? 이거 (가) 글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사실 난 처음 읽을 때 '환경 보호'에서 '환경'을 그런 공유 자원으로 보는 것인가 했음)

[6문단]

하지만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주신다면, **학생 자치회에서 공유 시설 사용 규약**을 수립하여 세척기 옆에 부착하고, **별도의 관리팀**을 운영하여 텀블러 세척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공유 자원과 관련하여 '공유지의 비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①
-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②
- 학교 복도에 둔 공용 간식을 공유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③

(나)와 관련하여,

- 텀블러의 세척 유무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④
- : 텀블러를 세척하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인가???
-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를 작성하기 위해 읽었다는 것은, (학생회장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독해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너무 좋은 문제고, 아마 몇 년 뒤 킬러 문제로 자리할 녀석이기도 하다.

- ① (가)에서 공유 자원이 초래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며 읽었다.
: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공유 시설 사용 규약'을 수립하고 '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유 자원'은 '텀블러 세척기'였다.
- ② (가)에서 공유 자원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하고, **어와 다른 특성이 있는 재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그런 걸 확인해서 뭐 하려고.
- ③ (나)에서 텀블러를 세척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인하며 읽었다.
: '(다)를 쓰기 위해서' 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자.
- ⑤ (나)에서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주목하고, 이러한 보상 체계를 학교에 적용할 필요성을 확인하며 읽었다.
: 이하동문.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건의하는 글을 쓸 때는 건의의 목적과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과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 ① 건의를 받는 사람을 교장 선생님이로 명시한다.
- ② **일회용 컵을 사용하던 학생들도 텀블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 뭐 지문으로 한 번 돌아가서 확인해야 했던 선택지. 놓쳤나? 하고. 이미 애들은 텀블러를 잘 사용하고 있었다. 세척기를 설치한다고 안쓰던 텀블러를 쓰게될 것이라는 것은 네 상식이지 지문이 제시한 '기대효과'가 아니다.
- ③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텀블러 세척기를 학교에 설치해달라는 건의 목적을 드러낸다.
- ④ 텀블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제대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 ⑤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는 것이 세균 번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검토한 선생님의 제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마무리 단계이니 상대방이 **건의 내용을 수용해 줄 것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비유법**도 활용해서 글을 읽는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 좋겠어.
: '강한 인상' 이란 건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없는 주관적 기준이니 배제하고 (1) 수용해주세요! (2) 비유법 이 두 가지로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풀면 된다.

- ① 환경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텀블러 사용이 가져올 **황금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 (1) 없음 (환경에 대한 것이 주제도 아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 ② **텀블러 세척기 설치**는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1), (2) 답
- ③ 텀블러 세척기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건강**은 천금과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설치 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은 절대 (1)이 될 수 없음.
- ④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셔서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응원을 왜 하는데. (2) 없음.**
- ⑤ 텀블러 세척기 설치로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 없음.

평범한 작문 단독 지문. 고3이 되면 아마 여기서도 더 박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9번에 있었던 자료 활용한 초고 보완 문제는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에서 킬러로 자리잡은 문제 유형이다. 한 번 킬러는 결국 돌아온다.

[28 ~ 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구상나무에 대해 알리는 글을 교지에 싣고자 함.
 : 대상은 학교 학생들이(이 보는 신문이 교지)이고, 멸종 위기인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

[초고]

[1문단]
 원뿔 모양에 앞의 뒷면이 은빛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데, 'Abies koreana'라는 학명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는 1920년에 영국의 식물학자가 학계에 처음 보고한 후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종은 2013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그 개체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 크게는 구상나무의 소개, 그리고 멸종 위기종의 현황을 제시하는 문단. 난 학명을 제시했네,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네, 하는 '작문법'의 성격을 띤 부분에 힘을 줘서 읽는 편이다. 유튜브 [절대국어] 화작 영상 참고.

[2문단]
 우리의 고유종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이유로는 집단 고사 현상, 이입되는 개체 수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집단 고사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대에서 나타나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후 변화이다. 구상나무는 눈이 녹을 때 생기는 수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데,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여 눈이 적게 쌓이다 보니,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얻지 못해 말라 죽게 되는 것이다.
 : 멸종 위기 이유 1. 지구 온난화로 눈이 부족 - 수분 부족

[3문단]
 이입되는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 역시 구상나무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다. 지리산 구상나무의 식생 변화 연구에 따르면, 구상나무가 흉고직경*이 2cm가 넘으면 '이입'되었다고 하는데, 2년마다 개체 수를 조사해 보니 이입된 개체 수가 고사한 개체 수보다 훨씬 적어 그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입되'다는 것은 그냥 아기 나무라는 뜻이네. 태어나는 것보다 고사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뜻.

[4문단]
 따라서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방안으로 구상나무 고유종을 살리기 위한 연구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요

구된다.
 : 사회적 차원 해결책 - 연구 & 실질적 제도

[5문단]
 다음으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A]의 구상나무를 알리는 교내 캠페인과 누리 소통망을 통한 구상나무 고유종의 멸종 위기 홍보 등이 있다.
 : 대상은 학생들이니 이 말이 빠지면 안 되지.
 : 학생 차원 해결책 - 교내 캠페인 & 누리 소통망(SNS)로 홍보
 * 흉고직경: 자라는 나무의 뿌리부터 1.3m 되는 부분의 나무줄기의 지름.

28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상나무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독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야겠어.
 : '크리스마스트리'
- ② 구상나무 고유종이 처한 현실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는 개량종의 환경과 비교해야겠어.
 : ? '처한 현실을 부각'하는 부분은 1문단, 2문단 선이어서 빠르게 돌아가서 훑고 답으로 결정. 언급된 바가 없음.
- ③ 구상나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이 드러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구상나무의 학명을 알려 줘야겠어.
 : 'koreana'
- ④ 구상나무 고유종이 언제부터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시기를 밝혀야겠어.
 : '2013년'
- ⑤ 구상나무 집단 고사가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 집단 고사 현상이 나타나는 곳들을 언급해야겠어.
 : '한라산' 등등

문학이 매우 매우 쉬웠다. 쌤은 무조건 지문 끝까지 다 읽고 푸는 편인데도 20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만 적는다.

<보기>
「부용전」은 자기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효행 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흥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악인이 처벌받는다라는 점과,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매번 쌤이 강조하는 <보기>의 인물화 독해! 근데 이미 인물 중심으로만 써 있어서 쉬웠음.

: 지금부터 만날 인물은 '효'를 위해 '자기희생'을 할 것이고,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도와줄 것이다. 우리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악인'이 등장하고, 특이하게 주인공의 '혈육'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제목 먼저 확인하고 지문으로 감.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용의 나이가 십삼 세요, 뇌성의 나이가 십 세라.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빈소를 붙들고 우는 말이,
: 부용이 주인공이고, 그 혈육은 뇌성이네. 둘 다 얘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얘기들이라 장사 지낼 방법도 없는 상황. '자기 희생' 서사를 기다리며 독해 진행.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건마는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매 살아서 무엇하리오.”
하면서 슬프게 통곡하더라. 울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잠이 들었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너의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하거늘 놀라서 잠을 깨어 살펴보니 노인은 간 곳이 없으나 땅을 완전히 그려 놓았고 밤은 이미 깊어서 밤의 색깔이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부용은 뇌성을 붙들고 뇌성은 부용을 붙들고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 묘터를 가르쳐 주니 즐겁거니와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금능땅 강 한림 댁에서 종들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몸을 그 댁에 팔아 재물을 얻어서 장사를 편안하게 하리라.”
하고 나서니 뇌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나 혼자 팔리게 하겠는가? 우리 남매가 함께 가자.”
하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에 따라가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피하는 듯하더라.
: 오케이, 일단 부용이 누나고 뇌성은 남동생. 방금 나온 '머리가 하얀 노인'은 <보기>에서 알려준 초월적 존재가 아님. 지금 딱히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제야 '자기희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락 부분의 줄거리] 부용 남매는 강 한림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 부용이 강 한림 부부의 총애를 받자, 그들의 딸인 난충은 부용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한다. 때마침 난충과 결혼한 손병진이 여주 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난충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 강 한림 부부네로 노예가 되는 대가로 장례를 치른다.(자기희생) 강 한림 부부는 좀 착한 사람들인지 주인공인 부용이를 이빠하는데, 그 딸인 '난충'이 바로 기다리던 악역! '손병진'은 그 남편.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여주로 가는 중이다.

난충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피를 얻지 못하다가 우연히 좋은 피를 얻으니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 자사가 백과강에 수록제*를 지낼 때 돈과 곡식을 많이 넣고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네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정신없이 울며 말하되,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다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한이로소이다.”

: "동생이라도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 ㉡ 백과강에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백구는 편편이 왕래하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태산 같은 크나큰 배에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너른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왕래하니 적벽강 싸움인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임술년 가을 칠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 놓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뱃사공들의 거동 보소. 네 번 절한 뒤에 비는 말이,
“강 속의 수신님은 천리 장강 깊은 물에 풍랑을 없애 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막까치는 슬피 운다.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의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하며 우는 말이,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금능땅에 가거든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서 황성에 간 부용은 백과강 수록제

[A] 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을 좀 전해 다오.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 하게 되었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좀 살려 주소.”

: 난충이 생각한 계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제사를 지어낸 건 아닌 듯. 위에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을 읽을 때 이미지화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간간한 일치 불일치 문제의 경우, 저런 장면 이미지 묘사에서 디테일한 선택지를 출제하기도 한다.

수록제를 지낸 후에 난충이 부용을 불러,
“어서 물에 빠져라.”

재촉하니 옥 같은 두 귀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점점이 피가 된다.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다가 섬섬옥수로 저

고리를 뒤집어쓰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 아니 불쌍하겠는가?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지?)

뱃사공들도 또한 슬프게 여기더라. 이윽고 풍량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웠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없어져 잠기게 하니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 배가 전복됨. 악인이 처벌 받는 중이네!

이때 난데없는 하나의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며 부용을 건져서 싣고 옥같이 잘생긴 선동이 배의 앞에 깃발을 달았는데 그곳에 '만고* 효녀 부용의 배'라고 황금으로 만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겼거늘 누가 감히 그 신기함을 알겠는가?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여도 빠르기가 화살 같더라. 선동이 손병진을 꾸짖어 말하기를,

[B] “네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의 말을 듣고 만고에 다시없는 효녀를 죽이려고 하니 옥황상제가 미리 아시고 사해용왕에게 분부하셨다. 난총은 마음 씩씩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 없어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 낭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급히 가노라.”

하고 강 중간에 이르러 황성으로 가더라.

이윽고 배를 ㉠ 언덕에 대고 유리병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요긴한 물건이다. 쓸 곳이 있을 것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낭자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되어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하직하고 가거늘 부용 낭자가 백사장에 앉았으니 이상한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하더라.

: 초현실적인 존재는 바로 '선동'(아이 신선)이었고, 그는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분부해서 내려온 존재. 악인을 벌하고 부용에게 초현실적인 도구로 보이는 '유리병'까지 건네줌.

(읽으면서 지금 배가 두 척이어서 난총이 탄 배만 침몰되고, 다른 배에 탄 남편인 손병진은 살아 있고 꾸짖음 당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넘어갔음)

- 작자 미상, 「부용전」 -

* 수록제: 물귀신을 천도하기 위해서 하는 곳.

* 만고: 세상에 비길 데가 없음.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용은 강 한림의 은혜를 고마워했다.
- ② 난총은 부용을 해칠 꾀를 얻어 기뻐했다.
- ③ 뱃사공은 물에 빠진 부용을 불쌍히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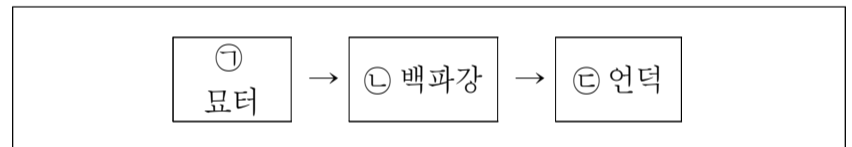
: 이런 선택지를 힘들어 한다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서술어가 인물상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고전소설은 유교적 가치관에 지배되는 조선시대의 것을 우리는 주로 다루게 된다.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선악이 굉장히 선명하다. 작가가 만약 뱃사공을 악인으로 설정했다면, 연민을 하는 존재로 제시하지 않는다. 애매하게 착하고 나쁜 것을 두루 갖춘 존재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전 소설이 정말 쉬워진다.

④ 부용은 선동에게 감사의 표시로 유리병을 주었다.

: 개가 받았다.

⑤ 선동이 타고 온 배에는 부용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있었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에 나타난 노인이 지목한 ㉠이 땅에 그려져 있었다.
- ② 부용은 여주로 가는 도중에 수록제의 제물이 되어 ㉡에 빠지게 된다.

: 이게 여주로 간 다음인지, 여주로 가는 도중인지 애매하다고 느꼈을 수 있음. 만약 그랬다면 굳이 돌아가기 보다는 밑줄 치고 세모 표시 후 넘기는 것을 추천.

- ③ 선동은 부용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에서 예언한다.
: "만승의 황후가 될 거야. 동생 만날 거야."
- ④ 부용은 죽은 부모를 ㉠에 장사하기 위해 강 한림 댁에서 지나다가, ㉡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 ⑤ 선동은 부용에게 ㉡에서 벗어나 ㉢으로 향할 것을 제안한다.
: 뭐라는 거야. ㉢에 내려 줘잖아.

3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용전」은 자기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효행 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흥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악인이 처벌받는다든 점과,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① 노인이 등장한 꿈을 뇌성에게 언급하는 것에서, 부용이 동생에게 고통 분담을 권유함을 알 수 있군.
: 그냥 주는 문제네. "뇌성아, 너도 나랑 같이 희생하자!" 이랬다고? 내가 파악한 '부용'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31번의 3번 선지와 같은 맥락. 친구들이 문학을 엄청 빨리 풀었다는데 너 너무 오래 걸린다면, 이런 고전소설의 전형성에 대한 숙련도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 ② 선동이 물에 빠진 부용을 구해 배에 태우는 것에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을 알 수 있군.
- ③ 난충이 탄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에서,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린 악인이 처벌받음을 알 수 있군.
- ④ 부용이 자발적으로 강 한림 댁의 몸종이 된 것에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함을 알 수 있군.
- ⑤ 난충이 수록제를 빌미로 삼아 부용을 죽이려 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고난이 악인의 계략 때문임을 알 수 있군.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의 선행을 부각하고 있으며, [B]는 청자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 [A]에서 X
- ② [A]는 자신의 처지에 상심하고 있으며, [B]는 청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A]에서 O, [B]에서 X
- ③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B]는 청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다.
: [A]에서 O, [B]에서 X
- ④ [A]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으며, [B]는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A]에서 X
- ⑤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탁하고 있으며, [B]는 청자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쉬웠던 현대소설.

<보 기>
「겨울의 출구」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자본을 앞세운 '현대시장' 측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도깨비시장' 상인들 사이의 대립을 바탕으로 근대화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애를 모색하고 있다.

: 내가 만날 인물들은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괴로워 하는 시장 상인들이다. 그런데 '현대시장'은 자본을 앞세운다고 하는 거로 봐서 도시 재개발 쪽 사람들인가? 싶고, '도깨비시장' 사람들이 특히 주인공인 것 같네. '아버지'는 아무래도 '도깨비시장' 소속일 가능성이 99%겠고, "그래도 함께 살아야지!" 이런 캐릭터다.

*좀 내신스럽지만, '아버지라니, 1인칭인 '나'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겠네~' 하는 것도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도깨비시장 입구 다릿목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니까 이제는 도깨비시장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이 없었다. 새벽 네 시쯤 짐 자전차를 끌고 집을 나가 시중의 멀리 있는 어물 시장에서 생선 몇 কে짜를 받아다가 다릿목 땅바닥에 벌여 놓고 팔았다.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다. 어떤 때는 줄까지 섰다.

: 맥락을 형성해야 하는 구간이라서 처음엔 천천히 읽는다. 아버지는 역시나 도깨비시장의 '터줏대감'이고, 생선을 파는데 인기가 많다.

“생선은 다릿목 그 장수한테 가야 싸고 물 좋은 걸 사요.” 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 생선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생선이 다 떨어져 사지 못한 사람은 다음 날 아버지한테 사기 위해 그날은 아예 빈 바구니로 돌아갈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는 물 좋은 생선만 팔았다. 그리고 친절했다. 단 한 마리를 흥정해 놓고 그것을 전을 떠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군소리 없이 척척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 생선 벨*을 따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쳐낸 다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정성껏 처리해 싸 주었다. 통나무로 된 생선 도마를 항상 깨끗한 물로 씻어 냈으며 도마질을 하는 아버지의 칼 솜씨 또한 날렵하기 일품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정직한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생선 값이 항상 시중의 어디보다 헐했다. 그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 보이는 얇은 수작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시샘을 해 필쩍 뛰던 같은 장사꾼들도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① 별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 싸고 좋은 물건을 파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겠지. '처음에는 시샘' 했다는 '장사꾼들'은 아버지가 이벤트로 싸게 팔아서 손님을 다 가로채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한 후로는 뭐라 안 했다. 그 '이해'는 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이고, 친절하고 뭐 그런 것인가?

김 씨, 그 돈 벌어 다 어따가 쌓아 놓았우? 김 씨, 그러다간 국회의원 나가두 되겠네.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비아냥거렸다. 물론 그들은 아버지가 십 년 동안 그 다릿목에서 맨날 그 꼴로 돈을 모으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거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군.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컸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엄청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우정* 돈을 피해 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특성이 더 있는 것. 아버지는 일단 '돈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고, '가우뚱'할 만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아버지는 하루 내내 생선 장사만 하지 않았다. 새벽에 생선을 받아다가 아침나절에 다 팔아버린 다음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의 반도 안 되는 생선을 떼어다가 팔면 그만이었다. 아버지에겐 아침저녁으로 장사를 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 대여섯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바로 그 시간이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손님이 많아 절절매는 사람들을 잠깐씩 돌봐 준 다음 시장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를 모아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 오케이, 아버지 파악 완료. 장사를 하루에 두 바퀴 돌릴 수 있는데, 한 바퀴만 하고 나머지 시간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네.

현대소설의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중략] 전 부분은 인물(캐릭터) 파악하는 발췌를 주고, 그 이후는 파악한 인물의 행적과 사고 방식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 다른 지문을 풀 때도 이 생각을 하면서 중략 전후를 유심히 보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난민촌인 천민동 주민들의 생계의 터전인 도깨비시장은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돈 있는 도깨비시장 출신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들은 도깨비시장의 노점상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거부한다.

: 철거될 위기, 그 와중에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은 따로 나와서 '현대(적인)시장'을 만들려고 함. 아버지는 당연히 '추진위원'을 거부함.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캐릭터니까.

그동안 도깨비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새 시장으로 옮겨 갔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라 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어쨌든 점포 주인은 있되 그것을 임대해 장사를 할 사람이 적어 시장이 반쯤 채워진 채 개장을 했다. 시장 안의 너른 노점대는 텅텅 빈 채였다. 도깨비시장의 노점들이 그리로 흡수되어야 할 것인데 누구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몇 달은 놀고먹겠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 큰 밑천을 넣어 장래를 내다볼 겨를이 없었다.

: 들어가지 않았다고보다는 일단 오늘 먹고 살기도 바빠서 옵션이 아니었던 것.

그런대로 현대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개장 기념으로 시장 옆 공터에서 노래자랑 대회까지 열었다. 물건을 사는 사람에겐 경품권과 기념품이 주어졌다. 조금 생활이 편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사려면 현대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도깨비시장을 지나서 그리로 갔다.

: 아무래도 그랬겠지. 시장 바닥에서 럭셔리한 '현대시장'이 열렸으니.

“이거 야단났구먼!”

도깨비시장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현대시장이 개장되면서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매상은 종전의 반도 안 되었다. 큰 물건을 팔아 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다.

“이거 어떻게 한다죠?”

아버지가 도깨비시장을 배회하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며칠만 그런대로 견뎌 봐요.”

아버지 말이 맞았다. 정말 단 며칠이었다. 도깨비시장에 몰리는 사람들이 전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현대시장으로 몰린 것은 새 시장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천민동 사람들은 아직 정연하게 진열된 상점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공연히 바가지를 쓸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다. 역시 마음 놓고 물건 뒤적이며 값 깎아내리기 좋은 도깨비시장 생각이 난 것이다. 그 도깨비시장의 햇볕에 그을린 노점상 아낙네들한테서 귀부인으로 떠받쳐지던 그런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다. 비로소 도깨비시장 사람들 얼굴에서 그들이 걸렸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먼.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 익숙한 것이 좋아서 다시 돌아오는 소비자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구름이 졌다. 우리 식구들은 그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며 새로 세운 현대시장 측에서 가만히 앉아 파리만 날릴 턱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 그들이 앞뒤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에 차질이 생길 리 없었다.

: '현대시장 측'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은 다 아는데 독자인 나만 모른다. 무슨 계획??? 왜 얼굴이 어둡지??'

“내 이럴 줄 알았다구!”

도깨비시장 사람들은 닥친 일에 차라리 체념한 얼굴로 멍청해졌다. 시장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일제히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것이다. 기한 안에 자진 철거를 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첨가된 계고장이 시장 점포마다 배달되었다. 아무 때고 한 번은 치를 훑어야 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리라곤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다.

: 강제로 쫓겨나게 생긴 상황. 현대시장 측은 이미 이것까지 다 생

각하고 새로 건물 짓고 들어간 것이었다. 너무해.
 - 전상국, 「겨울의 출구」 -

* 벨: '창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배알'의 준말.
 * 우정: '일부러'의 방언.

3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으로 특정 인물의 과거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역순행적 구성은 어렵게 나오는 지문에서 한 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자. *과거 회상을 한다고 무조건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
- ③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반복적인 동작'의 주체인 '중심인물'은 '아버지'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내적 갈등'은 현대시장이 들어오면서 도깨비시장에는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는 상태에 대한 내적 괴로움이어야 한다. 그런 괴로움과 연관한 아버지의 반복적인 동작이 전혀 머릿속에 남은 것이 없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특정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 주고 있다.
 : 지문에 '나'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임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언어가 등장하는데, '우리'(WE)는 1인칭 대명사다. 이 지문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특정 인물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서사를 서술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초점 인물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 초점 인물은 계속 아버지였다.

3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롭게 개장한 현대시장은 손님들 끌기 위해 개장 기념행사를 열었다.
 : 노래자랑 대회를 열었다고 했다.
- ② 아버지의 노점을 찾은 손님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
- ③ 현대시장 측은 도깨비시장 사람들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 ④ 아버지 주변 장사꾼들은 아버지가 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 농담 삼아 빈정거리기도 했다.
- ⑤ 큰 물건을 팔아 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물리자, 노점상들은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3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별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 ① 아버지가 큰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설명이 필요한가? 바로 고르고 넘어 갔어야 한다.
- ② 아버지가 판매하는 생선의 품질이 좋아서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아버지가 현대시장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 ④ 아버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덕분에 도깨비시장의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 ⑤ 아버지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주변 장사꾼들도 본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 그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가우똥'거릴 뿐.



38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항상 강조하는데, 인용구 부분에 힘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보기>의 언어와 연결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다.

<보 기>
「겨울의 출구」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자본을 앞세운 ‘현대시장’ 측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도깨비시장’ 상인들 사이의 대립을 바탕으로 근대화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애를 모색하고 있다.

- ① ‘손님이 많’은 시장 상인들을 ‘돌봐’ 주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인용부와 연결지어 보면 당연하다.
- ② ‘너른 노점대’가 ‘텅텅’ 비어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영세한 도깨비시장 상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든, ‘못했던’ 것이든,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맞다.
- ③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막막’한 것으로 보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삶의 애환을 알 수 있군.
: 당연하다.
- ④ ‘현대시장’에 갔던 손님들이 ‘며칠’ 만에 ‘도깨비시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크 손님들은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군.
: 손님들은 익숙한 게 그리웠고, 귀부인 대접이 그리웠던 것이지, 시장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보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가치는 도깨비시장의 상인들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크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 ⑤ ‘철거 계고장’이 ‘시장 점포’에 ‘느닷없이’ 날아온 것으로 보아, 재개발지구 정비 사업이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엄청 길어 보여서 시간 문제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고전 시가 기초 어휘만 잘 잡아 놓는다면 고전 시가처럼 시간을 줄여주는 효자 갈래가 없다.

<보 기>
(가)와 (나)는 유배지에서의 삶을 다루면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상황에서 지은 작품으로, 가난한 생활상과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일단 (가)의 <보기>만 읽고 지문으로 들어간다. (가)에서 만날 인물은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온 사람이다. 가난해서 힘들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탄식한다. 만약 진짜 ‘반역’을 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찡찡거리지 않을뿐더러, 글을 쓴다면 저 임금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글을 쓰다가 목이 잘렸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 인물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정도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진짜 반역을 꾀한 사람이 가질 마음이 아니다. 결론, 이 사람은 가난한 유배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얼른 날 풀어줘!! << 이렇게 만든 인물을 조심히 들여다가 지문 위에 살포시 얹어 놓는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내 일이야 이러할 줄 어이 알리
반초(班超)*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제
출장(出將)하고 입상(入相)하기 바라지 못하여도
남통북곤(南統北關)*은 내 손 안의 일로 알았더니
: 이러할 줄(유배을 줄) 알았는가! 입신양명하려 할 때, 최소한 절 도사는 될 줄 알았는데...

①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한 이가
속되지 못했으니 세상일을 어이 알리
: 내가 둔해서 세상일을 잘 파악 못하고 누명을 썼구나

한 치를 나아갔다 한 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고
박명(薄命)하고 불행하니 험뜯는 말 일어난다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고기 그물 펼치다가 기러기 걸린 모양
꿀 먹은 병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다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모(老母)께 글 올리려 붓을 들고 앉았으니
② 눈물이 붓 아래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찌 쓰리
대강으로 아뢰 말쑥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로다
: 엄마.. 편안히 있으세요 제 걱정 말고.. (눈물)

(중략)

섬 안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아침밥은 해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二庚)*에나

: 섬으로 유배를 온 듯. "애네는 왜이렇게 아침은 일찍 먹고 저녁은 늦게 먹는 거야?" (평민의 고단함을 딱히 이해하지 못하는 양반의 시선이라고 봐야겠지. 근데 그게 주제는 아니라서 넘어가도 무방.)

정신도 좋을시고 때맞추어 잘도 하네
불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다

: 양반 출신이라 이런 밥 처음 먹어 봄.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에 가을 소리라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을시고

: 이미 찡찡거리는 시라는 걸 잡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표현에 말려서 전체 주제를 흐리면 안된다. '좋기도 좋을시고'만 보고 어? 그래도 안빈낙도? 자신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선비 느낌? **이딴 식으로 흘러가면 안된다**는 말이다.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 인다
해산물은 무엇무엇 먹을 방법 알지 못해
귀와 눈만 유복하니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 배를 채우도다

: 섬이라서 해산물이 주변에 있긴 한데, 뭐 손질을 해본 적이 있어 야지 양반이. 그냥 물고기나 해삼 이런 거 구경만 하고 입맛만 다시는 중이다. 배고프다.

대장부 시름하면 공상이 인다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려로다
돌이켜 풀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이러하여 어이하리 **혹 살아 돌아가면**
물방울과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 보리**로다

: **엄마 보고싶다.**

㉔ 무죄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마는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 아니 통곡하라

: 이러한 태평성대에 '무죄한' 난 무슨 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유배를 왔다. 태평성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더욱' 통곡하는 중.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죄를 지어 죄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로다

팔만 집의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뉘 모르리

: 세상 사람들이 나 억울한 줄 다 안다.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㉕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聖上) 요순우탕 문무***의 때라
옥과 돌을 가리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 석방을 해 주시면**

: 위에 '태평성대'랑 연결되는 부분. 지금 현재 왕을 칭송하는 중이다. 옛날 성현과 같은 임금이시여 잘 구별하셔서 저를 석방해 주세요.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天恩)을 감축하고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 변화하게 지내리라

- 이방익, 「홍리가」 -

* 반초: 중국 후한 시대 흉노를 정벌했던 장군.
* 남통북곤: 남쪽의 통제사와 북쪽의 절도사.
* 이경: 밤 9시부터 11시 사이.
* 뉘: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 요순우탕 문무: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통치자들.

*쌤은 (가) 읽고, 40번은 답 결정, 41번은 2, 3번 선지를 지우고, 42번은 답 결정 후 (나)를 읽긴 했는데, 그렇게 분석지를 적으면 너무 정신 없으니 바로 (나) 지문 독해로 이어 간다.

수필이 살짝 어렵다. 문제는 쉬운데, 두 사람의 대화 맥락 파악이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발췌다.

<보 기>

(나)는 유배지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만물의 유동성을 삶의 본질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애도 유배를 온 사람인데, 어떤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이라. 유배와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와닿는다. 삶이란 원래 유동적이고 떠다니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인 듯하다.

(나)

나산처사(羅山處士) 나공(羅公)은 나이가 팔십이 다 되었는데도 흉안에 새까만 눈을 지니고 있어서 **여유 있는 품이 신선과 같았다.** **다산(茶山)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꽃과 약초가 벌려 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 있으니, 세상의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 이로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므로 주상께서 사면하여 환향케 할 것이니**, 사면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를 심으며 샘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드는 등 이처럼 구원한 계획을 세우는가.** 내가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여 년이 다 되며 거기에서 사당을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네.** 그런데도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엮어뒀으며, 정원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네.** 수시로 구차스레 보수만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자신에 호(號)하기를 부부자(浮浮子)라 하고 집은 이름하여 부암(浮菴)이라고 하였네. ㉔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는 어떠하랴. 자네의 일은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 하였다.

: '지인'인 '나공'이 놀러와서, "삶이란 계속 '떠다니'는 것인데, 뭐 그렇게 '꽃을 모종하고 약초를 심'는 등등 하며 열심히 꾸미는가? 우린 갑자기 떠나고 갑자기 돌아올 텐데."라고 말한다. 대사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을 파악하는 독해를 연습해야 한다.

내가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아, 달인이로소이다.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이 이미 알았 습니다.** 그러나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浮萍草)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며 선생께

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부레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며, ㉞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일정하게 매여 떠다니며, 하늘은 태허(太虛)로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싣고 역조창생을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댓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 요약하면, 모든 것은 떠다니는 것이다.

지금 천하에서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 여기가 텅기는 부분이다. 언제 선생이 슬퍼했지?? 슬퍼했다는 필터를 끼고 앞의 대사를 다시 읽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허탈함, 인생무상에 가까운 슬픔), 처음에 저 노인의 대사를 읽으며 슬픔을 읽어내는 것은 과하고, 할 필요도 없다.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찢은 듯이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떠다니는 것이 뭐 불가한 일입니까.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범려*는 강호에 떠서 화(禍)를 멀리하였고, 서불*은 떠서 나라를 열었고, 장지화*는 떼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진*은 떼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㉞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까.” 하였다.

: 그렇구나. 위의 노인은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맥락인가 보구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 정약용, 「부암기」 -

* 범려, 서불, 장지화, 예원진: 중국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오답률 5위를 차지한 문제로, 4번 선지를 31%가 선택했었다.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을 활용하여 [효과/주제/정서]를 나타낸다."는 형식으로 선택지가 구성된다. 항상 후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되, 거시적/특정 위치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한다. 둘 다 처리하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활용하여' 부분인 인과 관계 부분에 시비를 걸어 본다. 맨날 수업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① 색채를 대비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보류~

②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이건 대사의 앞부분만 봐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위치로 판단 가능한 표현이다. 감탄형 어미들로 판단해도 되고, 사실 시작 부분만 봐도 감탄사가 등장한다. "어저"도 감탄사다. 답이다.

③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이걸 고른 이유 - 찾지는 않았지만 자주 봤던 선택지라서, 고전이니까 자연물, 감정 이입은 웬만하면 있겠지~ 이런 태도로 고른 것일 수밖에 없음. 그렇게 대충 풀면 고3 때는 와장창 틀린다. 감으로 찍지 마라.

별개로, 좀 중요한 선택지라 설명을 단계적으로 해 볼게.

(1) 일단 '지향하는 가치'를 따져보자. (원래 이 순서로 해야 한다.) (가)에서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만 봐야 하는데, '자연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해와 달' 정도. 근데 '해와 달'은 임금을 비유한 표현일 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아님. 그래서 틀린 선택지.

(2) 이 부분은 EBS 해설에서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보니 그냥 감정 이입이 없다~ 이려고 넘기고 있는데, (나)에서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이 부분은 감정 이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기뻐하는 것이' '나'인데, 만나는 대상인 자연물도 그 정서가 동화된 것이니. 이 부분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음.

⑤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계절이 변화하듯이 나의 상황도 변화(좋은 방향으로)하기를, 이라는 맥락의 서술이어야 한다.

(나)는 상화오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굳이 갖지 않는다. 이미 지금 행복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4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성품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처세에 능하지 못했던 삶을 회고하고 있다.
- ② ㉡: 북받치는 감정에 글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모의 안녕을 바라고 있다.
- ③ ㉢: 과거의 전례와 당대의 세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대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 시대 상황은 태평성대로 칭하고 있다. 반어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후에 현재 왕을 '요순우탕 문무'로 이상적인 임금에 빗대고 있기 때문에, 맥락상 현재 시대 상황을 탄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④ ㉣: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상대방의 행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⑤ ㉤: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41.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공경하는 인물을 비유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을 비유한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자기반성을 위해 활용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 4번 선지의 ㉠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편한 표현이지만, 실전에서는 살려두고 ㉡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염원을 이루어 줄 존재를 칭송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유배지에서의 삶을 다루면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상황에서 지은 작품으로, 가난한 생활상과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만물의 유동성을 삶의 본질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불린 보리 콩 조밥'을 먹으며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 배를 채우'는 모습에서, 유배지의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군.
- ② (나)에서 '구원한 계획을 세'워 '암자'를 가꾸는 것에 대한 나공의 의문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에서, 떠다니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자신을 '고기 그물'에 걸린 '기러기'에 비유한 데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태도가, (나)에서 글쓴이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을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이라 한 데서, 자신을 떠다니는 만물의 일부로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가)에서 '팔만 집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무교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나)에서 '선생'이 삶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군.
: 인용 맥락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아가자. 4번 선지를 읽었는데도 고르지 못했다면, 이건 선택지를 보는 태도의 문제다. (나)의 부분은, 정약용이 '선생'이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임금이 '명을 내려 석방을 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나)에서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정처 없는 삶을 보편적 이치로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엄청 쉬웠던 현대시 세트. 쌤이 계속 엄청 쉬웠다고 하는 말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평소에 문학을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이다. 어려운 현대시들 정말 많다.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부터 독해하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에서 발견한 생(生)의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햇볕에 내놓은 젖은 가구들의 모습을 통해,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가는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벼를 던져 놓은 농부와 그것을 쪼는 새들의 모습을 통해,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공존의 미덕을 나타내고 있다.

(가) : '젖은 가구들'(로 비유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더 열심히 살자!! 하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내용

(나) : 궁핍한 농부가 '새들'(로 비유되는 더 궁핍한 존재들)을 위해서 벼를 던져 배려하는 내용.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홍수에 젖은 세간들이

: 그냥 '가구들'로만 읽지 말고, 사람들로 읽는다면 의미부여하기 훨씬 편하다.

골목 양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햇볕 불 일 한 번도 없었을

늪은 몸뚱이들이 주글주글해진 배를 말리고 있다

굵히고 녹녹해진 피부

등이 굽은 문짝 사이로 구멍 뚫린 퇴행성 관절이

삐걱거리며 엎드린다

그 사이 당신도 많이 상했군

진한 햇살 쪽으로 서로 몸을 디밀다가

㉠ 몰라보게 야윈 어깨를 알아보고 알은체한다

살 델라 조심해, 몸을 뒤집어주며

작년만 해도 팽팽하던 의자의 발목이 절룩거리다

풀죽고 곰팡이 손 허겁스레기,

버리기도 힘들었던 가난들이

아랫도리 털 때마다 먼지로 ㉡ 풀풀 달아난다

: '가난들이 달아난다' 진짜 가난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희망의 언어로 읽어볼 수 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음지의 근육들

탈탈 털어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짹짹해진다.

: 아까 주글해진 피부가 다시 짹짹해진다. (쌤은 고통을 받던 노인들이 점점 생명력을 받아 젊어지는 이미지를 생각했다.)

- 최영철, 「일광욕하는 가구」 -

(나)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새들을 불러모은다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뻥한 들판에도 있었구나

: 추수가 잘 된 것도 아니다. 궁핍한 농부를 그리면서 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아무 것도 없는 들판에 뭐 먹을게 있다고... 하면서 새들을 보는 농부를 그린다.

㉢ 짐짓 무심히 떨궜던 벼톨 하나가,
벼톨 하나의 온기가,

㉣ 가장 높이 뿔뿔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면

궁핍한 시절이다, 새삼

불빛들 두런두런 피어나고

긴 부리 짧은 부리 짓가락질 바쁜 나그네새와 함께

콕, 콕, 콕, 조아리며 연신

언 땅을 일구는 떼까치가 있다면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 무심함이 여기서, 의도치 않게 베풀 (새들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친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

저문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었구나

저문 하늘에 ㉤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

: 하늘의 몇 없지만 보이는 '별들'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 부여로 족함.

- 손택수, 「저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모은다」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공간 이동 안 하고 일광욕만 하고 있었다.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어미만 보면 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촉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미시적인 선택지. 보류.

⑤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지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정답 선택지. <보기>만 읽어도 애가 답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시의 제목이 사물이나 동물이다?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임을 명심하자. 이게 '가구'나 '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겠냐고.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가구들의 모습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을 활용하여, 가난의 흔적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을 활용하여, 농부가 ~~수확 후의 허전함을 숨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짐짓'의 의미를 안다면 좀 더 쉽게 고를 수 있겠다. 하여튼 이견 수확 후 허전함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 ④ ㉣을 활용하여, 높이 나는 새들마저 끌어당길 정도로 배고픈 시절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을 활용하여, 들판에 흩어져 있는 벼들의 모습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모습과 연결 짓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에서 발견한 생(生)의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햇볕에 내놓은 젖은 가구들의 모습을 통해,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가는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벼들을 던져 놓은 농부와 그것을 쪼는 새들의 모습을 통해,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공존의 미덕을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홍수에 젖은 새들'이 '햇살에 쨍쨍해'지는 것은, 삶의 활력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군.
- ② (가)에서 가구들이 '굵히고 녹록해'지고 '곰팡이 쓴' 것은, 고난을 겪은 존재들의 상처를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헹한' 것은, 새들이 먹이를 찾기가 어려운 궁핍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군.
- ④ (나)에서 '나그네새'가 '긴 부리 짧은 부리'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다른 존재와 먹이를 나누려는 공존의 미덕을 드러낸 것이군.~~
: (1) 자기네 먹기 바쁜 장면이다.
: (2) 이 <보기>에서 '공존'이라는 단어의 범주는 '농부' & '새들'이다. 새들이 저마다의 먹이를 먹기 바쁜 장면인 <보기>에서 설정한 공존의 범주가 아니다.
- ⑤ (가)에서 가구들이 '야윈 어깨를 알아보'며, '몸을 뒤집어주는 것과 (나)에서 농부들이 새들을 위해 '벼들'을 '떨궈' 놓는 것은,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생의 긍정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군.

끝.

[11-15]와 같이 볼 지문1 (2016년 고3 4월 청약과 승낙)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락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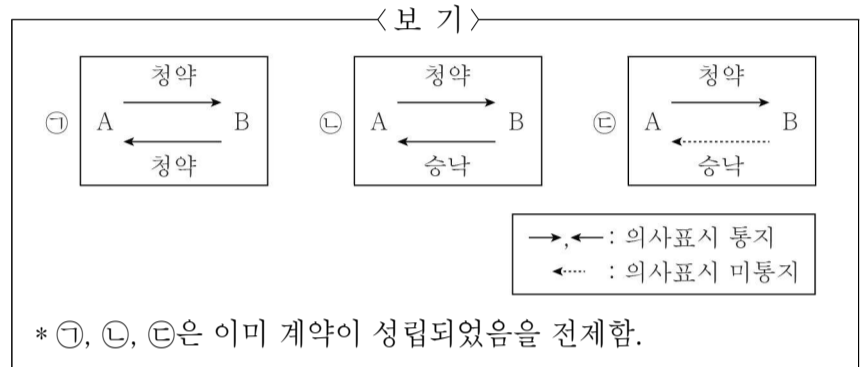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승낙기간: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구분하고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기술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각각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② ㉠의 경우,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지만 두 청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합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③ ㉡의 경우,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낙의 의사가 담긴 B의 말을 A가 들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④ ㉢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⑤ ㉢의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4월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을의 답장은 4월 22일에 도착했다.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맞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다.

- ①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 ②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락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 ⑤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11-15]와 같이 볼 지문2 (2026년 고2 3월)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를 약속하는 것이다.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했거나,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국제 거래에서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는 국제 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CISG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위험 이전은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지게 된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그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지게 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고 매매 계약의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

㉠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위험 이전 시점을 정하는 이유는 운송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과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에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국제 거래에서는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수령했을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한편 원유, 천연가스과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위험이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품 부적합이란 물품이 계약 내용이나 법적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CISG에 따르면 물품 부적합이 위험 이전 시점 전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이 품질, 포장 등에서 계약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멸실: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②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③ CISG에 따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진다.
- ④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있어야 한다.
- ⑤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 계약은 대부분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다.

5 윗글과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운송인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이 특정되지 않아도 위험 이전이 될 수 있다.
- ③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 ④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 ⑤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품 부적합이 발생한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6 다음은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메모이다. 밑줄과 메모를 바탕으로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매도인 A는 매수인 B와 물품 ○○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A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다. B가 고용한 운송인은 A에게 ○○를 인도받아 B에게 운송했다. 운송 도중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태풍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여 ○○가 훼손되었다. B는 ○○를 수령한 직후 ○○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A에게 통지했다. A와 B의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을 규정한 CISG의 내용을 따랐다.

- ① B가 발견한 ○○의 훼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수령은 A보다 B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로부터 ○○를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에 위험이 A에서 B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태풍에 의한 침수로 ○○가 훼손되었음에도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B가 ○○를 수령한 직후 ○○의 훼손을 확인하였으므로, B는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위험 부담 주체는 A이고,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의 위험 부담 주체는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JIHWANIZM

추가 문항 해설

[1~3] <출전> 명순구, 「민법학원론」

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②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3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답① ㉠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2문단에서 이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④ 4문단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이고,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3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손해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정이 사려는 골동품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은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① (가)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아닌 계약으로, 2문단에서 이러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이 4월 12일에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락하는 경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승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계약 성립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청약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승낙자는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가 승낙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이 매매 대상이 없어진 것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정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4~6] (사회) 안강현, 「로스쿨 국제거래법」

이 글은 물품 매매 계약의 위험 부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거래에서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는 국제 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CISG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CISG에는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이 규정되어 있다.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정답④ 문단에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정답③ 3문단에서 원유, 천연가스과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물품에 관한 위험이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또한,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

우,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운송인이 위험 이전 시점을 결정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거래에서 매매 계약의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6. [출제의도] 논증하는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

정답② 3문단에서 CISG의 내용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동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A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의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을 규정한 CISG의 내용을 따랐으므로, A로부터 OO를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에 위험이 A에서 B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③ 2문단에서 CISG에 따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태풍에 의한 침수로 OO가 훼손되었음에도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저야 한다.